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장학월보

2011
제226호(통권445호) **12**

■ 장학특집 / 교육기부

■ 교육정보 / 차세대 나이스의 효율적 운영





2011년도 경남 교육정책

교육 지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육성



꿈을 키우는 학교 · 함께하는 교육

정책 방향

1. 소질을 살리는 인재교육
2. 미래를 여는 창의인성교육
3.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4. 희망주는 교육복지
5. 신뢰받는 교육행정



역점 과제

1. 기초와 기본 교육 충실
2. 도민과 함께하는 독서운동
3. 녹색 성장 환경교육
4. 기초 질서 생활화
5.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6. 교원 전문성 신장
7. 학교경영의 책무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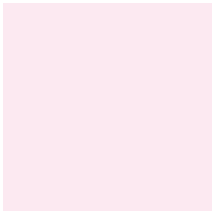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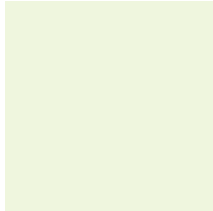
특색과제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임는 학교

장학월보

THE GYEONGNAM SUPERVISORY BULLETIN

2011. 12 제226호(통권 445호)



02 권두언
04 교육감 동정
05 장학현장
06 장학 칼럼
08 특집 /
교육기부

• 교육공동체와 함께 열어나가는 경남교육 / 고영진

•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이어서 소중하다 / 강동률
• 사회의 미래에 대한 투자, 교육기부 / 김윤정
• 바람직한 교육기부 정착 방안 / 오세희
• 교과부 지정 교육기부 선도교육청 추진 계획 / 김종식
• 교육기부를 통하여 지역 인재를 세계 인재로 / 신경초
• 교육기부, 그 아름다운 약속으로
21세기 우주 항공 프론티어 육성을 꿈꾸며 / 김동욱
• 과학동아리, 교육을 기부 받다 / 고민화
• 하동화력의 통 큰 교육기부 / 오세현

26 좋은 수업 다지기

• 멜로디언 앙상블 형태의 리듬합주를 해보자 / 송박철
• 경제 체험활동을 통한 문제해결력 신장 / 정창욱
• 학습한 내용이 일반화되기를 바라며 / 고천영

34 교육정보

• 2012. 경남 학습부적응학생 통합지원계획 / 박진우
• 차세대 나이스의 효율적 운영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경남교육 / 정운영
• 덴마크 자유교육에서 변화를 꿈꾸다 / 구현숙

45 명품학교, 명품교육

• 일본자매학교와 '특별한 2박3일'의 일정을 보내며 / 이완기
• 교육 공동체가 함께 하는 덕계 과거시 / 신문옥
• 우리는 할 수 있다! / 주성해
• '중앙' 하면 역시, '돌안축제' 쵸 / 설유경
• '창의벚꽃' 인성누리 싹틔우기! 사제동행 체험학습 / 김영수

59 교육미담사례

• 외 감사합니다 / 이호근

61 참여마당

• 교 원 - 전통예절과 다도를 통한 인성교육 / 황현숙
• 학부모 - 행복한 엄마를 꿈꾸며 / 전형남
• 학 생 - 마음이 닳아갔던 시간들 / 강민성

67 향기나는 서가

• 조벽 교수의 『인재혁명』을 읽고 / 강호경

69 지상갤러리

• 향수 / 김봉대

▶ 표지사진 - 박준일(구산초등학교교사)

장학월보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 전문지로서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소망합니다.

• 1월호 모집 기간 : 2011년 12월 15일까지 • 모집내용 : 이색교육현장, 참여마당(시, 수필, 독후감 등), 독자후기 등 • 분량 : A4 1~4매 내외
※ 보내실 곳 : 641-719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초등장학담당) 장학월보 담당자 앞 <http://ms.gnedu.net>-장학월보커뮤니티

2011년 12월 1일 발행

• 발행인 : 경상남도교육감 고영진 • 총괄 :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 기획 : 초등장학담당장학관 이국식 • 편집주간 : 교육과정과 장학사 박정화
• 편집위원 : 한영자, 박준일, 구현숙, 윤수영, 김민주 • 인쇄 : 문성인쇄사 (055) 282-9922



교육공동체와 함께 열어나가는 경남교육

조화로운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미국의 경제학자 스콧 니어링(Scott Nearing)은 생계를 위한 4시간의 노동, 지적 활동 4시간, 좋은 사람들과 친교하며 보내는 4시간으로 구성된 하루를 가장 조화로운 삶이라 여겼다고 합니다.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사뭇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인생에서 나름의 조화로운 삶은 꼭 추구해야 할 가치일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모여 우리의 일생이 됩니다. 한 해의 막바지에서 교육 가족 여러분의 매일이 조화로운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경남교육 12월의 문을 열어봅니다.

경남교육 가족과 도민 여러분!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2011년 경남교육은 ‘꿈을 키우는 학교·함께 하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책 읽는 학교,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를 경남교육 특색으로 설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책을 읽으며 지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고, 노래를 통해 화합과 소통을 배우고, 운동으로 공동체 의식과 올바른 규칙을 배우나가는 건전하고 건강한 학생 육성이 경남교육이 지향하는 교육의 모습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들을 배출한 하버드 대학의 마크에는 책이 세 권 그려져 있고, 그 세 권의 책 위에는 ‘VERITAS(진리)’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형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두 권의 책은 펼쳐진 채로, 나머지 한 권의 책은 덮여진 채로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지식을 얻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펼쳐진 두 권의 책, 즉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의 삼 분의 이는 독서를 통해, 덮여진 한 권의 책, 즉 우리가 추구해야 할 나머지 삼 분의 일의 진리는 책 바깥의 세상에 있음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학교교육이 학력향상과 인성교육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데서 우리는 늘 딜레마에 빠집니다. 학부모나 사회가 기대하고 재촉하는 가시적인 성과는 교육의 본질이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교육자인 우리가 추구하는 내용과는 그 간극이 너무 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간극을 좁혀나가고 극복해야 하는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과 일선 학교가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해온 교육 특색 과제들은 학교교육과 사회가 요구하는 현실의 간극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고민하는 딜레마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학교생활에서 일상으로 반복되는 노래와 운동과 책 읽기는 비전이나 지표로 제시되는 경남교육의 지향점이 학교현장에서 실천되는 교육의 과정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마크에 그려진 엮어진 한 권의 책, 우리가 추구해야 할 책 바깥에 있는 삼분의 일의 진리는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 그리고 몸을 움직여 땀 흘리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하는 합창과 땀흘리며 뛰고 달리는 운동 시간은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촉진하는 자양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경제학자라는 지위를 내려놓고 인생의 후반을 소외 계층을 위해 살다간 스콧 니어링은 백 번째 생일날 이웃들로부터 이런 글귀를 선물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 덕분에 세상이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2011년을 마감하면서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께도 선물하고 싶습니다.

“경남교육의 발전, 교육공동체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지난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 12.

경상남도교육감





01



02



04



03



05



06

- 01 독도연구소와 업무협약식 체결
- 02 2011. 대학수학능력 시험장 감독관 격려
- 03 카타르 WISE 세계정상회의 참석
- 04 2011. 월드비전 사랑의 동전 나누기 성금 접수
- 05 일본 이와쿠니중합교 방문
- 06 경남미래교육재단이사회 개최



07—



08—



10—



09—



11—



12—

- 07 낙동강학생수련원 - 농촌 일손돕기 실시
- 08 경남유아교육원 - 제2회 책벌레 가족대회 시상식
- 09 창원교육지원청 - 2011. 창의력대회 창의공감! 함께하는 창의 세상
- 10 밀양교육지원청 - 부모님과 함께 가는 신나는 신라역사체험 나들이
- 11 양산교육지원청 - 2011. 독서골든벨
- 12 김해도서관 - 2011. 독서아카데미 2기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이어서 소중하다



강 동 루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

또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청명한 가을 한 번 느껴볼 새도 없이 사무실 밖 거리풍경은 벌써 겨울이다. 업무의 흐름으로 계절을 읽는다. 지난 10월부터는 중등 신규임용선발고사를 시작으로 유·초·특수 신규임용선발고사도 진행 중이다. 더불어 2012년 인사를 앞두고 지역교육청을 순회하며 교원들의 소리를 듣느라 교원인사과 전체가 바퀴 달린 사무실이 되었다. 2012학년도부터는 전문직 선발을 위한 전형에도 변화가 생겼다.

인사제도가 지침이 해마다 바뀌곤 했던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난 제도의 허점이나 오류를 개선하여 시행착오를 줄임으로써 교원들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인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변화의 핵심이다. 해마다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교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이유이기도 하다.

예부터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사람의 움직임은 작게는 한 집안부터 크게는 국가의 존망까지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다. 역사의 흐름을 통해 보면 인재가 많았던 시대가 곧 성군의 시대와 일맥상통함을 동서고금을 통해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정책이나 업무의 수행이 그러하겠지만 특히 인사업무는 수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언제나 전체를 고려해야하지만 당사자는 늘 개인이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한 과정과 달리 결과는 늘 기대에 못 미치는 여운을 남기곤 한다.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이다. 그러나 개선을 위한 노력이 다른 한 쪽에는 불평등과 기회상실이라는 또 다른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딜레마를 극복할 방법은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

맹자의 이야기를 철학 우화로 쓴 윤재근은 그의 책 「나를 팔아 명성을 사지 않는다」에서 이렇게 말했다.

‘삶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그러나 성취를 쟁취로 여기려는 탓으로 우리는 고달프고 답답하게 된다. 성취는 보람으로 얻는 것이고, 쟁취는 억지로 빼앗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빼앗으려 하면 나를 상대하는 남도 빼앗고자 한다. 뺏으면 빼앗긴다. 그래서 쟁취에는 승패가 있다. 그러나 성취에는 승패가 없다. 땀 흘린 만큼만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성취의 진실이다.’

때론 준비된 도전이 행운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 상심은 더 크다. 기회는 일정 부분 행운과 함께한다. 때문에 그 실패는 가치 있고 다음에 다른 기회를 기다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절치부심이다. 윤재근의 말에 공감하는 것은 땀 흘린 만큼만 얻어낼 수 있다는 성취의 진실이다.

가을을 끝내고 갈무리를 마친 자연처럼 교직의 삶도 돌아보면 결코 녹록치 않은 비바람을 이기며 ‘지금’ 이 순간에 서 있다. 소명의식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쉽게 이겨낼 수 없는 역경들이 스쳐갔고 앞으로도 닥쳐올 것이다. 해마다 인사철이 되면 단맛 혹은 쓴맛을 느껴야 하는 과정을 거친다. 열매를 잘 영글게 하려고 일 년 내내 몸부림쳤지만, 때아니게 서리가 내려 다 익어 가는 열매가 망쳐질 수도 있다.

인사제도의 지침이나 변경이 누구에게는 단비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구에게는 우박이나 서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인 것이 우리는 쟁취가 아닌 성취를 위해 노력하면서 사는 인생이다.

‘삶을 왜 소중히 맞이해야 하는가? 삶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에 삶을 소중히 해야 한다. 뜻대로만 되지 않는 것을 알아야 뜻한 바대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생을 위해 땀을 흘릴 수 있다.’ 윤재근의 책에서 맹자의 생각을 읽고, 읽어본다.

사회의 미래에 대한 투자, 교육기부



김 윤 정

한국과학창의재단 창의인재기획단장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나선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이는 창의적 인재 육성이 국가경쟁력의 관건인 오늘날 더욱 중요하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수많은 직업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 학교 밖의 체험활동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시설과 자원이 한정된 학교 안에서만이 아니라 전문가와 첨단시설, 다양한 리소스가 풍부한 기업, 연구소, 공공기관 등 사회 현장은 살아있는 학습의 장이다. 따라서 ‘교육은 학교에서 한다’는 고정관념을 탈피해 지역사회 도처가 학습의 장이고, 만나는 모든 이들이 선생님이라는 마인드가 학생이나 교사만이 아닌 이 시대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할 가치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사회 모든 영역, 모든 사람들이 ‘교육기부’라는 이름으로 교육의 새 패러다임 시프트에 동참해 볼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부’와 ‘봉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기부’ 하면 떠오르는 것은 ‘연말연시에 불우한 이웃을 위해 돈이나 물건을 공짜로 주거나 한 두 번 방문해 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기부나 사회공헌도 좀 더 다양해지고 진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다음은 2010년 대통령 주재 교육개혁대책회의를 통해 제시한 ‘교육기부’의 개념과 다양한 교육기부의 유형이다.

『교육기부(Donation for Education)』의 개념

- 기업·대학·공공기관·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
- 기관 보유 시설·프로그램 및 이를 가공한 교육자원 제공(프로그램 기부)
 - 악기·실험기자재, 영화·미술작품 등이 임대 또는 무상 제공(장비/콘텐츠 제공)
 - 학생 동아리, 체험활동 등에 차량, 보험 제공(활동 지원)
 - 강연, 멘토링, 지식봉사 등 (개인 재능 기부)

교육기부 공감대 및 참여 분위기 조성

아직은 많은 이들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 ‘교육기부’를 확산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기부·나눔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과 공공기관들부터 ‘자본주의 4.0시대 교육기부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지속 발전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이란 것을 적극 공감해야 할 것이다. 사실 최근 외국의 동향을 보더라도 기업의 교육기부는 투자의 개념에 입각해 보더라도 손색이 없는, 사회공헌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다. 예컨대 세계 최대의 석유회사 엑슨모빌의 경우 최근 사회공헌활동의 우선 순위를 정함에 있어 ‘이해 관계자의 관심’과 ‘사업에 대한 영향력’을 기준으로 분야와 대상을 선정하는 바, 소비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고, 장기적으로 사업에 대한 파급효과도 높을 수 있는 분야는 다름 아닌 ‘미국의 수학·과학 교육지원’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기준은 온 국민의 교육열이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기부 수요와 공급의 효율적 연계

현재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교육기부 매칭시스템을 설계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분야의 기관들과 개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보다 쉽게 교육기부의 대상자와 연결될 수 있도록 교육기부의 제공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온-오프라인 시스템이다. 여기에서는 기부희망·요청 자원들의 수준을 관리하고, 자원의 이용 여부는 학교가 최종 확인, 활용토록 할 것이다. 우선은 기존에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활동들의 정보를 통합하고 체계화 할 것이며, 이것이 활성화 될 경우, 여기에서 교육기부에 대한 인증 서비스 일부도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각 분야별로(기업,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개인 등)교육기부의 정보를 제공토록 할 것이며, 이것이 발전·활성화 될 경우, (학교 동창회,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를 포함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교육기부 자원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매칭시스템이 잘 정착될 경우, 다자간의 기부협력 또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교육기부도 ‘아니바다’ 같은 교환과 보탬을 통해 수요자에게 보다 풍부한 교육적 기여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즉, A는 재능을, B는 공간을, C는 기자재를, D는 운영비를 기부하는 등과 같은 모으고 나누는 교육기부 협력 시스템이 이루어질 때 수혜자들은 보다 질 좋은 환경과 자원, 프로그램을 누리고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교육기부 인증제 운영

교과부와 창의재단에서는 기업이나 기관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책임 있는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교육기부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교과부에서는 ‘교육기부기관 인증제 운영 규정’을 제정(11.3월 고시)하고 창의적 인재양성에 이바지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상시적·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 오른쪽과 같은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인증제를 통해 교육기부의 질을 관리하고 기업은 광고 등에 인증(DE)마크를 활용하여 기관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인증 마크 등은 아주 작은 홍보 효과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관건은 결국 기부의 수혜자이자 기부제공자에게 다시 소비자가 될 수 있는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언론 등의 많은 관심과 칭찬이 보다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 발굴·개발·확산 지원

순수하고 자유로운 민간의 기부 활동에 질을 따지거나 힘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주는 것이 지나쳐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기왕하는 기부’라면 ‘정말 좋은 기회였다’라는 만족을 줄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전문 기관이 교육기부의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학생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난감해 선뜻 시도하기 어려운 경우, 정부와 교육계가 조금만 도와준다면 훨씬 더 보람 있는 활동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선순환이 되어 교육기부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에 ‘교육기부’를 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첫째, ‘교육과정과 연계된’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융합형 프로그램,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개발함이 바람직하다. 셋째, 각 기관의 특성을 살리면서 학교현장이 부족한 부분, 특히 진로활동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면 공교육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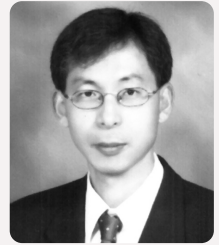
교육기부의 활성화를 위해 이제는 학교가 될 때.....

교육기부는 주는 쪽이나 받는 쪽 모두가 미래를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지속발전 가능한 상생의 행위이다. 따라서 기부 제공자는 미래인재 육성에 대한 사회적 투자의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이며, 교육기부의 대상이 되는 학교나 교사, 학부모는 우리 아이들에게 21세기에 필요한 문제해결력과 창의력을 다방면으로 기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를 아이들에게 체험시키고 그들의 호기심을 살려 각자가 흥미로워하는 영역에 대한 탐구를 이끌기 위해서 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교육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이들과 파트너십을 이뤄 끊임없이 새로운 교육을 시도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방방곡곡 교육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풀뿌리 기부활동이 필요하다. 따라서 유난히 교육열이 높은 우리의 적극적인 학부모들이 녹색어머니회, 안전동지회, 명예사서교사 등 하교길 교통안전지도만이 아니라 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열의를 보인다면 그야말로 풀뿌리 교육기부의 토양이 마련될 것이다. 그리하여 IT전문가 학부모의 교육기부, 예술가 학부모의 재능기부, 기업체에 근무하시는 부모님들의 진로지도 명예교사, 나아가 보다 더 적극적인 학부모들이 소속 기관 차원의 교육기부까지 유도한다면 학교는 사회 곳곳을 교육의 장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교사의 역할이 변하고 있다. 이제는 Teaching만이 전부는 아니다. facilitator나 guide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교사도 교육기부의 수혜자라는 수동적 생각보다는 사회의 수많은 자원을 학교 안으로 끌어 오고 교실을 세상으로 넓히려는 개척자의 역할을 고민해본다면 21세기 우리 아이들의 공교육은 더욱 더 풍성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바람직한 교육기부 정착 방안



오 세 희
인제대학교 교수

최근 '자본주의 4.0'이라는 어느 일간지의 기획 기사를 유심히 읽었던 기억이 난다. 그 기사 내용 중 특히 관심을 끌었던 것이 평범한 사람들이 사소한 기부하지만 행동으로 실천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나도 언젠가는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비록 실천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식이나 경험을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으며,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세계가 놀랄만한 압축적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이루어, 선진국의 대열로 들 어섬에 따라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기부'란 말을 자주 접하게 된다. 최근에는 이러한 기부가 보다 확대되어 사회의 각 분야에서 '나눔과 배려'라는 또 다른 의미로 우리들의 다양한 삶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교육분야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

특히 새롭게 변화하는 글로벌 교육환경에 대응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학교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더 더욱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 관심 역시 증대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교육기부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육기부란 개념 자체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게 들리는 것 역시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 동안 교육기부가 정부출연기관이나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교육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육기부가 우리 사회에 일반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기부가 무엇인지와

관련된 개념 정의가 필요하며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관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교육기부는 ‘기업·대학·공공기관·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교육기부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기부의 내용과 유형을 보다 더 구체화하고 체계화하여 이를 매뉴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즉,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것에는 아래 <표>에 제시된 것처럼 재능기부 뿐만 아니라 비록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교육적 활동을 위하여 노동력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림으로써 교육기부에 관심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표> 교육기부의 유형 및 내용

기부형태	기부내용	설 명
인적 기부	재능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 관련된 자신의 재능을 제공하여 학습효과를 높이는 데 활용하는 것 - 학습지도, 교육방법 상담, 창의적 체험활동 지도 등
	노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록 전문적인 교육활동은 아니지만 교육적 활동에 자원하여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 학부모 교통봉사대, 실버봉사단 등
물적 기부	재정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금전적 후원 - 저소득 학생에 장학금 지원 또는 학교발전 기금 지원, 학술 연구에 재원 지원, 기업의 교육기부 단체 후원 등
	기자재·시설·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 및 설비 또는 장소를 교육적 활용을 위해 제공하거나 기증하는 것 - 시설 및 교구 제공, 실습 기기 대여, 체육관, 실습실 등
무형 자산 기부	프로그램·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 아이디어 및 콘텐츠 등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습 프로그램 무료 제공 등

※ 자료 : 배상훈(2011). 교육기부 활성화 및 이를 통한 학교교육강화 방안. 미래교육공동체 포럼 발표 원고

둘째, 교육기부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기부가 체계적이며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제의 구축이 요구된다. 비영리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교육기부 주체에게 비영리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과정에서 소요되는 필수 경비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부의 주체와 수요자가 적절히 연계되고 이 과정에서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지원 센터를 설립한다거나 특정기관을 허브 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연계시스템의 구축과 활용도를 높

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기부의 질을 어느 정도 담보하기 위한 인증체제의 도입도 필요하다.

셋째, 교육기부는 기본적으로 자발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활동이다. 또한 특정기관, 단체 및 개인만이 하는 활동이 아니라 누구나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상의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교육기부를 살펴보면 개인보다는 기관이나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부가 교육적 활동과 연계되어 나타나고 이를 교육현장에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작업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기부는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성이 될 때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기부의 수요자인 학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무엇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파악이 요구된다. 즉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된 영역, 직업탐색과 관련된 영역,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영역 등 학교 밖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거나 필요가 있는 교육활동을 학교와 교사가 파악하여 제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교육기부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여 실질적이며 적절하게 교육활동과 연계될 때 교육적 효과는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때, 향후 교육기부가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기제로써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양극화 및 다원화, 국제화가 더욱더 진전될 것이므로 사회통합과 시민의식의 성숙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그 과정에서 '나눔과 배려'가 요구된다. 따라서 이제는 그 동안의 경제적 기부를 넘어서 교육분야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교육기부를 우리의 일상생활에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노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교과부 지정 교육기부 선도교육청 추진 계획



김 종 식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정책과 장학사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패러다임의 전환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기부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 교육청은 도·농간의 교육기부 격차 해소를 위한 도·농 복합형 모델을 제시하면서 교과부로부터 교육기부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되어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1. 교육기부 활성화 기반 조성

가. 기반 구축

정책연구 실시 : 경남교육정책개발 TF팀

경남교육기부 'e-나눔미' 사업 제안 『교육기부운동 확산 운영 연구』(2011. 2)

□ 경남교육기부 TF팀 구성·운영(2011.3.)

나. 'e-나눔미' 홈페이지(enanumi.gne.go.kr) 개통(2011.7.1.)-[전국 최초]

□ 'e-나눔미' 교육기부 프로그램(300개)

□ 'e-나눔미' 교육기부 프로그램 매칭(204회)

다. 교육기부를 위한 협약 체결

□ 도교육청 : 51개 기관과 교육기부 MOU 체결(2011. 12월 현재)

□ 교육지원청 : 466개 기관과 별도 교육협약 체결(2011. 12월 현재)

2. 교육기부 선도교육청 운영 개요

가. 추진 배경 : 교육기부를 통해 확보한 인적·물적자원의 학교현장 활용 촉진

※ 「교육기부 활성화 방안」 수립·보고(2011.6.14. 총리주재 교육개혁협의회)

나. 운영 목적 : 도·농간 교육기부 격차 해소 및 교육기부 활성화 기반 조성

다. 운영 기간 : 2011. 11. ~ 2012. 3. (5개월)

라. 교육기부 추진위원회 구성 : 교육기부 전담팀 및 권역별 센터 구성·운영

교육기부 전담팀	교육기부 지원 권역별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기부 업무 기획·총괄 -교육기부 지원 거점센터 운영 지원 -교육기부 프로그램 및 컨설팅 자료 개발 -물적기반 대외 협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기부 안내 및 지역 홍보 -교육기부 프로그램 매칭 -거점센터별 전담인력 상설 배치 -창원센터, 진주센터, 김해센터, 거제센터

마. 학교수요에 맞는 단계별 프로그램 개발 계획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별, 교과별로 이용 가능한 기부 프로그램 분석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기부 프로그램 매칭 시스템 개발 • 기부 프로그램 및 학교 요구 프로그램을 수집/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석 → 학교단위 기부 프로그램 조정 → 단위학교 활용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 가능한 기부 프로그램 개발

바. 교육기부 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예시)

프로그램명	운영기관명	유형
오늘은 나도 커피바리스타	마산대학교 국제소믈리에학과	대학연계형
내가 실용음악 제작자	한국국제대학교 음악과	대학연계형
고고학과 함께 하는 박물관기행	경상대학교 박물관	대학연계형
우주 항공 예비에이션 캠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기업연계형
대우조선 해양 야드 투어	대우조선해양	기업연계형
넥센타이어와 산관학 협력 진로교육	넥센타이어	기업연계형
DANCE THERAPY 3GO	드림댄스힐예술단	문화예술형
쪽물에 하늘 담그기	쪽하담(조정란)	문화예술형
내가 우포늪 환경 지킴이	우포늪생태관	문화예술형
재능쑥쑥 겨울방학 스포츠 교실	김해문화의전당	스포츠형

※참가 신청 : 지역교육청을 통해 ‘e-나누미’ 매칭 과정에 따라야 함

교육기부 선도교육청 운영과 더불어 범·도민 교육기부운동 분위기 확산을 위해 경남미래교육재단 사업 추진, 경남도청 및 시·군 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언론기관과의 협력체제 유지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자본주의 4.0시대 사회공헌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교육기부자의 참여 폭을 넓히면서 사회의 유용한 자원이 학교 교육력 향상에 있어 효과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이 중요한 시기이며, 우리교육청의 교육기부 선도교육청 운영이 주춧돌을 놓는 과정이라 여긴다.

교육기부를 통하여 지역 인재를 세계 인재로!



신 경 초
창원교육지원청 교육과정지원과 장학사

▣ 영재아 지도를 위한 새로운 고민의 시작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영재교육진흥법(2000. 1. 28, 법률 제6215호)에 의거하여 창원교육지원청 진해영재교육원은 영재성을 가진 아동을 선발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하여 왔다.

2004년 4학년(초등 2반, 중등 2반)으로 개원하여 1·2학기 토요일 오후 수업활동과 방학을 활용한 집중학습을 통하여 전공교과, 발명, 컴퓨터, 체험, 견학, 특강을 진행하였다. 정규 교육과정과 별개로 학생과 교사의 멘토학습을 통해 학생 개인이 스스로 만들어보는 산출물을 1년간 진행하면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창의성을 키워주려고 노력하였다.

2008년까지 진행한 4년 간의 교육활동으로 영재교육 운영에 대한 시행착오 및 새로운 교육방법의 적용, 영재학생 진로에 대한 중단연구 등 영재 교사 협의회를 갖고 문제점 분석 및 피드백을 통하여 영재교육의 정착을 시도하였으나, 새로운 문제점에 부딪히게 되었다. 학생지도를 위한 교수·학습과정안을 구안하는데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과 학생들의 체험학습과 특강을 위해 해마다 반복되는 교육활동으로 운영의 큰 틀을 벗어나기 힘들었고, 무엇보다 실생활과 연계된 교육활동의 적용분야가 너무 협소하여 영재교육의 다양성에 많은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교사협의회를 중심으로 학생을 위한 영재교육의 운영방법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활동이 시작되었고, 그에 대한 해답을 교육의 틀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찾게 되었다. 그 활동의 첫 걸음이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부활동으로 시작되었다. 지역사회 기관을 찾는 건 힘들었지만 선정된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육기부는 그 빛을 발하고 있다.



2011.8.11~12 제3 영재원
국방과학연구소 여름 집중 체험학습



국방과학연구소와 교육기부 협약

▣ 영재교육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구기관의 교육기부

진해구는 해양 도시로써 바다와 관련된 연구기관이 있다. 석·박사진의 연구진이 2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제6기술본부(이하 6본부)가 그것이다. 해상무기를 주로 개발하는 이곳은 타 연구기관과 다르게 보안이 매우 중요하여, 처음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실현가능성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진해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교육하기 위한 교육기관과의 MOU체결을 통해 본격적인 교육지원 즉, 교육기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로 인해 영재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기부를 위한 본격적인 협의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다.

- ▶ 사전 협의회 - 진해영재교육원과 6본부 운영진의 만남
- ▶ 교육기부 분야 설정 - 해양과학에 대한 지원 분야 및 교육시간 수 조정
- ▶ 프로그램 수준 협의회 - 초·중등에 따른 교육방법 협의
- ▶ 교육기부활동의 진행 - 1·2학기 주제별 특강 실시
- ▶ 연간활동 반성회 - 특강 중심 활동의 장단점 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수정
- ▶ 교육기부 영역의 확대 - 특강 외에 견학, 현장체험학습 영역의 추가

▣ 전문분야 연구진의 교육기부를 통한 영재교육방법의 다변화

가. 특강

영재교육이 이루어지는 초, 중학교에서의 특강은 과정별 2~3회로 이루어졌으며 6본부의 박사진이 현재 연구 중인 전문분야를 학생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과학과 수학, 정보가 실생활과 연계되어 활용된다는 점에서 호응이 높았다.

특강일	과정	분야	특강일	과정	분야
04/16(토)	초등 과학, 초등 수학	잠수함	06/18(토)	초등 정보	수중 무기
04/30(토)	초등 정보	수상 무기	07/02(토)	중등 과학	항적
05/21(토)	초등 과학, 초등 수학	음향탐지	10/15(토)	중등 수학	바닷속 소리
06/04(토)	중등 수학	해양 과학	10/29(토)	초등 과학, 수학	유체 유동

나. 과학의 날 행사 국방과학관 견학

교육기부의 일환으로 6본부에서는 학생을 초청하여 과학 탐구 생활 및 국방 과학 기초 분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국가 과학발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연구소 과학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4월마다 시행된 이 행사는 대전에 소재한 국방과학관 및 국립중앙과학관을 견학하는 코스로 운영되었으며, 활동과 관련된 경비는 전액 지원되었다.



연구소 소리피장 실험실 체험



현장 체험 및 견학

다. 체험학습

체험학습은 여름방학 집중학습기간 중 2일 동안 실시하며, 아동들의 지적호기심을 자극하고자 하였으며 그 운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운영방식: 각 과정별 수준을 고려하여 초등 4개, 중등 3개의 과정으로 조를 나누고 실험실을 로테이션하며 수업을 듣고 실험에 참여 한다.

2) 체험학습 내용

실험실명	학 습 명	실험실명	학 습 명
수중탄도/운동연구실	실험실 소개	진동소음 연구실	진동실험 및 실험실 소개
수중유도제어실	수중 유도제어 실험 및 소개	자기연구실	자기실험 및 실험실 소개
음탐연구실	음향 탐지 실험 및 실험실 소개	추진 동력 연구실	실험실 소개 및 실험
수중음향연구실	수중 탐지 실험 및 실험실 소개	내압 구조 연구실	실험실 소개 및 실험

▣ 교육기부! 더 큰 세상을 향한 첫걸음

6본부의 교육기부로 인하여 진해영재교육원은 첨단 과학실험실 체험이 가능하여 심화된 교육활동으로 영재교육의 발전과 우수인력 양성에 도움이 되었고, 이론과 현실 속의 연관성을 확인함으로써 과학적 사고력과 논리력의 향상은 물론 다양한 직접경험을 통해 사고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인적, 재정적인 이유로 인한 교육활동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 다양한 형태의 기부를 통하여 교육을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기부, 그 아름다운 약속으로 21세기 우주 항공 프론티어 육성을 꿈꾸며



김 동 옥
사천 용산초등학교 교사

2011년 10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주5일수업제를 전면 자율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감성과 인성을 융합한 창의성과 문제해결력 신장에 대한 요구가 거세어지고 있는 이 때, 주5일수업제는 훌륭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5일수업제의 목적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 가족간의 유대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에 있으므로 다양한 사회 체험교육은 바람직한 인성 함양에 큰 방향점이 되리라 생각한다. 물론 주5일수업제가 전면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학교에서 운영되던 토요일휴업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방침은 그렇게 변한 것은 없다. 하지만 학교나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토요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일부 우려의 눈길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

주5일수업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 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자체, 사회교육 시설 등 민·관·산·학이 연계한 총체적 지원 체제가 필요하며, 이러한 협력 체제를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기부' 문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교육기부가 활성화되려면 수요자인 학교 현장과 함께 직접 지원 기관인 교육청의 주도적 참여가 필요하며 전문가, 지역사회, 관련 기관 간의 협조체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교육기부의 형태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소외 계층에 대한 급식 지원, 학생들의 일탈 및 불건전한 생활을 예방하고 지도하기 위한 안전 지도, 도서관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수업이나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는 보조교사, 진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과학 등 전문 분야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다. 우리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에서도 지역내 다양한 사회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교육기부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특히, 관내에 있는 한국폴리텍항공대학,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연계한 다양한 항공과학영재 교실 교육기부 프로그램은 도내에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폴리텍항공대학에서는 학생들의 항공과학에 대한 흥미 고취와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신장시키고 많은 학생들에게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항공과학 영재교실’ 프로그램을 4년 전부터 운영하였는데, 2010년은 약 500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았고, 2011년은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참여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약 900명의 사천 관내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고무줄 토잉 비행기 제작 교실, 물로켓 체험 교실, 사이버 조종 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교수님들과 함께 신나는 체험 학습을 하였다.

또한 지역내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찾아가는 항공과학 교실’을 개설하여 관내 벽지학교나 소외 지역 학교 학생 240명을 대상으로 ‘글라이더 제작 교실, 사이버 조종 교실’ 등을 통해 평소 접할 수 없었던 체험 교육을 함으로써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우리 관내의 다문화 가정과 장애인 가정의 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랑의 항공과학 교실’을 운영하여 많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교육은 어릴때 부터 실시할수록 그 효과가 크다고 생각되어 2011년은 ‘꿈나무 항공과학 교실’을 개설하였는데 관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항공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였다.

사천시의 입구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한국과학창의재단-교육과학기술부-경상남도교육청-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등과 MOU를 체결하고 국가 항공 우주 산업을 선도하는 대표적 기업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정부의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정상화 등에 부응하기 위하여 KAI가 보유한 지식, 경험, 공간 등을 활용하여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항공 과학 연수 프로그램(에비에이션 캠프)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에비에이션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재미있게 재구성된 교수법을 통해 수업 시간에 배운 기초 수학, 과학 지식을 체험하며 즐길 수 있었다. 뉴턴의 제2 운동 법칙, 모우먼트 원리, 평형 방정식의 원리, 미분과 적분 등 교과서 속의 지식이 실제 비행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생생한 지식 습득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장래 우리 나라를 이끌어갈 과학 인재를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캠프의 세부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창의 인재에 관한 특강, 비행 시뮬레이터·항공기 동·격납고 등의 체험학습, 양력의 원리·산화와 환원 등에 관한 이론 학습, 도미노 게임 등의 게임 학습으로 진행된다. 이 캠프의 참가를 원하면 (<http://www.kaicamp.co.kr>)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국가 항공 우주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항공 도시 사천에서 민·관·학이 연계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이 미래 과학 인재로 자라나 우리의 미래를 굳건히 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과학동아리, 교육을 기부 받다



고민화
진주 개양중학교 교사

1. 교육기부와의 첫 대면

1학기말,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교육기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학부모님의 소중한 재능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부해 달라는 내용이 인상 깊었다. 최근에 재능기부가 화제가 되고 있지만 학부모님들의 교육기부를 호소하는 내용을 접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교육현장에서 학생들과 소통하다보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진로와 직업에 대한 고민에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움을 줄 수 없을까 고민하게 된다. 그런데 ‘교육기부’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직접 소통하고 교류함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능력을 일깨워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다. 또한 학부모님들의 소중한 경험과 따뜻한 관심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교육기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했고, 교사인 본인도 기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 여러 통로를 찾아보던 중, 공문을 통해 ‘경남교육기부 e-나눔미 (<http://enanumi.gne.go.kr/index.do>)’ 홈페이지를 알게 되었고, 생각보다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교육기부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진주 인근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기부 단체를 검색하던 중 한국국제대학교에서 다양한 교육기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교육기부 내용 중 과학 동아리 활동에 도움이 되는 교육기부를 찾게 되었다.

2. '음악 스튜디오' 직접 체험

우리 학교에는 과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모여 만든 과학 동아리 '뉴턴'이 활동하고 있다. 과학 동아리에서는 2011년 동아리 프로젝트로 과학과 방송을 접목한 '과학 방송'이라는 주제를 정하고, 그에 따라 팀을 나누어 과학 동영상 제작하고 있다.

'과학 방송'이란 교과서에서 배우거나,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과학적 원리를 드라마, 캠페인, 광고 등의 동영상으로 만들어 방송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각자 시나리오, 연출, 연기, 편집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동영상을 만든다.

동영상을 만들 때 학생들은 가요를 개사해서 에너지 절약송을 만들거나 실험의 원리를 직접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 내용을 녹음 하는 과정에서 음질이 나빠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없는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그러던 중 e-나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국제대학교의 교육기부를 알게 된 것이다. 해당학교 음악학과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기부의 내용은 음향미디어 교육이었고, 아이들이 동아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신청을 하게 되었다.

신청 후 국제대학교 음악학과 교수진은 오디오 음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뉴턴 동아리' 학생들을 초대했다. 2011년 7월 29일, 동아리 학생들이 다소 들뜬 표정으로 국제대에 모였고, 교수진은 Booth와 Control Room에 있는 장비들을 소개하고 그 장비들의 역할을 설명해 주었다. 처음에는 학생들에게 낯선 용어와 장비들이었지만, 여러 원리들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여기저기서 "아~" 하는 탄성이 들려왔다. 그리고 Booth와 Control Room에서 교수진과 대학생들이 직접 보여준 밴드 공연이 녹음되는 과정도 볼 수 있었다.



▲ 개양중학교 학생들의 국제대 음악스튜디오 탐방 현장

3. 학생들의 잠재능력이 싹트는 교육현장

평소 동영상을 제작할 때 전문적인 장비들 없이 그냥 핸드폰이나 MP3에 녹음을 하기 때문에 잡음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녹음방식을 직접 체험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었다. 학생들이 써낸 소감문을 읽어 보면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활동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과학 동아리 학생 중에서는 음악에 소질을 가지고 있어 예고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에게 교육 기부는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기부’라는 단어, 우리 과학 동아리 뉴턴에게는 생소한 이름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국제대학교에서 음악학과 교수님들께 ‘교육 기부’를 받았다. 자신의 재능을 남에게 가르쳐주는, 그렇게 서로가 보람찬 활동이 교육 기부다.

녹음실 - 음악방송, 가수들의 뮤직비디오에서만 보던 이곳을 직접 들어와 보게 되다니! 그리고 녹음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보니 한 번쯤 꼭 작곡이나 프로듀싱을 해 보고 싶었다. 가장 좋았던 것은 평소에 잘 다루지 못하는 악기들과 그 구조에 대해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바로 밴드에 쓰이는 악기들이다. 기타는 자주 접할 수 있지만 베이스나 드럼은 구조나 사용법에 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특히 기억에 남는다. 음향은 그냥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다양한 과정을 거쳐 탄생한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나는 음원의 가치를 알 수 있었다. 음원은 여러 음향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의 음원을 위해 여러 사람의 땀방울이 담겨 있다는 이 마음에 굿 다운로더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아주 좋은 기회를 놓치고는 한다. 나는 아직 많은 꿈을 꿀 수 있는 나이이고 처음 시도하는 것이 흥미롭고 신선하다. ‘음향’과 관련된 지식을 교육 기부를 통해 배우게 되었다. 교육 기부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참여 했으면 좋겠다.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공유해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고자 한다. 하지만 처음의 우리 뉴턴처럼 ‘교육 기부’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이제 교육 기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하고 싶었던 경험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꿈을 찾으면 좋겠다.

(개양중학교 2학년6반, 김지이)

4. 지속적인 선순환을 기대하며

학교에서 동아리지도를 하다보면 학생들의 체험활동에 대한 요구에 부딪히게 된다. 하지만 적절한 체험활동을 찾기가 어려워 매 번 고민이었다. 이번 체험활동은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의 여러 제약 조건을 넘어서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전문적인 교육을 교육기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기부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나아가 우리 학생들이 자라서, 자신들이 받았던 기부를 다시 나눌 수 있는 선순환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하동화력의 통 큰 교육기부

-금남고 기숙사 건립비 전액을 지원하다-



오 세 현
하동 금남고등학교 교장

섬진강 하구, 하동포구 길목에 자리한 갈사만. 그 가장자리에 7개의 굴뚝이 우뚝 솟아 있다. 이곳이 바로 하동화력본부다. 국내 총 설비용량의 5.5%, 총발전량의 12%를 생산하는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의 주력 사업장으로 500MW급 발전기 8기가 가동되고 있고, 연간 매출액이 약 2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에너지 기업이다.

하동화력본부에서는 전력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이해와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하동화력 1호기가 준공된 1995년부터 발전소 주변지역에 육영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까지 146억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 사업비만 해도 약 15억 원에 달한다.

또, 지난 6월에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장학사업과 금남고등학교를 지역 거점 명문고로 육성시키기 위해 그동안 적립해온 40억원으로 하동화력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이 장학재단을 통해 금남고 기숙사 건립비용 20억원을 경상남도교육청에 기부하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모 언론에서는 ‘하동화력본부, 금남고 기숙사 신축비 20억 통 큰 기부’라고 썼다.

금남고등학교 명문화 추진사업은 한국남부발전(주) 남호기 전 사장(현 전력거래소 이사장)과 하동화력본부 경영진의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인재양성을 중시하는 경영철학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 전 사장은 2009년 9월, 경영전략회의에서 금남고 명문고 육성 사업 방향에 대해 “학교장의 생각과 여론을 충분히 듣고, 목표를 명확히 해야 그에 걸맞는 추진 방안이 세워진다.”고 했었다. 감사하는 마음이 앞서지만 한편으로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하동화력의 금남고 명문화 사업은 교장하기 나름’이라는 느낌이 가슴에 와 닿았기 때문이었다.

하동화력본부로부터 수년 동안 육영사업비를 지원 받아온 금남고등학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속담처럼 교육시설은 매우 열악하였다. 교과 교실제나 수준별 수업을 하기 위한

여유 교실도, 학생들의 각종 동아리 활동 공간도, 심지어는 한 학년을 함께 모을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었다. 아직도 과학실에서 가사실습을 해야 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만들어준 농구장 2면이 운동장의 전부다. 천정의 최신식 냉·난방기는 그 많은 열기를 훌 창문에 도둑맞고, 복도며 교실 바닥은 뽀뽀 뽀뽀 먼지 알은체를 한다. 용케도 이런 환경에 잘 적응해온 학생들이 기없고 대견하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동안의 무심함에 서운함이 앞선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 부임한 학교장으로서 ‘과연 하동화력은 약인가, 독인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하동화력이 중심이 되어 만든 금남고 명문화 지원사업도 있었고 지역인사들까지 망라된 명문화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소문만 무성할 뿐,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어 답답했다. ‘그래, 그나마 얼마나 다행인가? 약도 잘 못쓰면 독이 되고,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마음을 다진 날로부터 하동화력 경영진과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줄다리기가 시작되었다. 진정성 있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성과가 있었다. 학교를 이전하지는 제안을 시작으로 하동화력 인적·물적 지원을 학습의 장으로 제공, 명문화 비전 5개년 로드맵 수립, 명문화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개최, 육영사업 전담 장학재단 설립, 기숙사 건립 공개설명회 개최, 발전소 주변지역 우수 학교 벤치마킹 초청 음악회, 금남고 교육력 제고를 위한 민관학(경상남도교육청-하동군-하동화력본부) 협약식, 우수 신입생 유치 홍보물 제작, 하동화력본부의 교육기부(DE) 기관 지정 신청 등

이렇게 하기를 8개월여, 하동화력 경영진과 많은 생각을 공유해 가면서 깊은 신뢰를 구축해 가고 있다. 특히, ‘금남고 명문화 실행계획’이라는 큰 결실도 맺어졌다. 여기에는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한 장학금 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신입생 최대 500만 원, 재학생 최대 월 30만 원, 기타 성적향상 장학금 등), 기숙사 건립비 지원, 교사 지원 방안 수립, 학력향상과 인성·감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학 미진학자 취업지원 등 5개 분야 16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물론 예산 지원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제 모든 공은 학교장 앞으로 넘어왔다. 도교육청에서 있었던 금남고 교육력 제고를 위한 민관학 협약식을 준비하기 위한 모임에서 “기숙사는 단순히 먹고 재우는 곳만이 아니다.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라고 지도·조언해 주신 교육감님의 당부 말씀도 귓전에 쟁쟁하다. 학교장으로 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전국 곳곳에 많은 전력시설이 있고, 그 각각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하동화력본부 만큼 육영사업에 이렇게 많은 교육기부를 하는 기업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글로벌 Top 10 에너지 기업을 꿈꾸는 한국남부발전(주) 하동화력본부의 통 큰 교육기부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면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교육기부가 좀 더 많은 공기기업들로부터 촉발되기를 기대한다.

멜로디언 앙상블 형태의 리듬합주를 해보자♪



송 박 철
고성 하일초등학교 교사

1. 새로운 리듬합주 편성하기

가. 기존의 리듬 합주 편성의 문제점

- 1) 해마다 시·군별로 개최되는 리듬합주대회에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초등학교 리듬합주 편성과 음악적 표현에 대해 약간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 2) 리듬합주의 일반적인 편성을 살펴보면, 리코더, 멜로디언, 아코디언, 학습용실로폰, 마림바, 비브라폰, 타악기 등으로 구성된다.
- 3) 리코더의 경우 음량이 적어 관중에게 전달이 어렵고, 학습용 실로폰을 과다 사용하여 음질과 통일감이 떨어지며 큰북과 작은북의 음량이 너무 커 전체 조화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 4) 가락악기의 종류가 다양하여 통일감이 떨어지고 타악기의 음량에 묻혀 음악적 표현력이 떨어졌다.

나. 멜로디언 중심의 새로운 합주 편성의 효과

- 1) 리듬합주에 있어서 음질과 음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합주 편성을 시도해 보았다.
- 2) 새로운 리듬합주 편성은 멜로디언 1부, 2부, 3부, 아코디언, 오르간, 피아노, 비브라폰, 마림바, 타악기 등이다.
- 3) 기존의 편성과 다른 점은 다양한 가락악기를 멜로디언으로 구성하고 오르간과 피아노를 첨가한 점이다.
- 4) 멜로디언 앙상블 형태의 리듬합주 편성의 효과는 주선울(멜로디언)의 음질이 동일하여 색채면에서 통일감을 주고 리코더의 음량을 보다 확대할 수 있어 음악적 표현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아코디언, 오르간 등은 멜로디언과 비슷한 음색이어서 아름다운 앙상블을 구성하는데 효과적이다.

2. 멜로디언 앙상블 형태의 리듬합주 지도

가. 복식호흡과 텅잉의 중요성

- 1) 멜로디언은 바람을 불어서 혀로 텅잉하여 연주하는 악기이다. 따라서 호흡과 텅잉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2) 복식호흡의 경우 입과 코로 동시에 공기를 흡입하여 배꼽아래까지 보내는 훈련을 해본다. 특히 손가락을 배에 사뿐히 누르듯이 연습하면 복식호흡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된다.
- 3) 텅잉에 따라서 곡의 느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슬러, 스타카토, 더블텅잉 등 기본적인 텅잉 연습을 꼭 해둘 필요가 있다.

나. 연주 전 긴소리내기

- 1) 일반적으로 합주곡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곧바로 시작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박자에 맞추어 연주할 수 있어도 음악적 표현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생길 수 있다.
- 2) 음악적 표현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곡을 연주하기 전 '긴소리내기'를 통해 소리 다듬기를 하면 효과적이다.
- 3) 긴소리내기 방법에는 4박자 내기, 슬러 텅잉 내기, 스타카토 내기, 더블텅잉내기, 점점세계와 점점여리게 내기 등 다양하다.

다. 연주별 파트 지도 방법

- 1) 교사 한 명이 전체 악기를 지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악기별로 파트를 나누어 여러 선생님이 지도한다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 2) 멜로디언 파트는 가능한 피아노를 익힌 교사가 맡아서 지도하면 손가락 번호를 쉽게 지도할 수 있다.
- 3) 오른간과 피아노의 경우는 피아노 기능이 있는 아동을 우선 선발하여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 전체 연주 지도 방법

- 1) 파트별 지도가 완성되면 전체 연주를 진행한다.
- 2) 전체 연주라고 해서 곧바로 합주를 시작하면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다.
- 3)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파트와 다른 파트의 화음을 차례대로 맞추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선율 악기의 앙상블이 완성되면 타악기와 전체적인 악상을 만들어 간다.

3. 감동있는 무대연출 방법

가. 오케스트라형 무대배치

- 1) 기존의 리듬합주 무대를 보면 일자형이거나 '고음', '중음', '저음'의 고려 없이 혼잡한 형태를 갖추어 음악적 표현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 2) 오케스트라형 무대배치는 관중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저음’ 파트, 중간에는 ‘주선율’, 왼쪽에는 ‘고음’ 또는 ‘대선율’을 배치하여 사람의 오른쪽 귀는 ‘저음’에 왼쪽 귀는 ‘고음’에 잘 적응하는 생리적 현상을 고려한다.
- 3) 멜로디언 앙상블 형태의 무대배치는 오른쪽에는 멜로디언 3부(저음부)와 아코디언, 오르간 등을 배치하고, 중간에는 멜로디언 1부(주선율), 왼쪽에는 멜로디언 2부(대선율)을 배치하여 오케스트라형 무대를 형성한다.

나. 음악에 어울리는 연주자의 몸동작

- 1) 관중은 연주자의 모습에서 음악적 느낌을 많이 받는다.
- 2) 곡에 어울리는 간단한 몸동작(움동)으로도 음악적 표현력을 높일 수 있다.
- 3) 악기를 쥐고 있는 상태에서 머리와 어깨부분을 약간만 음악에 맞추어 주면 경쾌한 곡에서 더욱 효과가 나타난다.

다. 지휘자의 역할

- 1) 지휘는 합주에서 연주만큼 큰 비중을 차지한다.
- 2) 리듬합주 대회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 지휘의 모습은 박자에 치중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음악적 감동이 삭감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 3) 지휘자는 박자를 유지하면서 파트별 연주를 지시하고 전체적인 악상을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지휘자의 모습을 통하여 관중은 더욱 큰 감동을 얻을 수 있다.

4. 리듬합주도 예술적인 음악으로 승화될 수 있다.

가. 선곡의 중요성

- 1) 요즈음 음악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수준은 상당히 높은 상태이다. 그래서 음악 교과서 수준의 곡들만 고집할 경우 아동의 흥미는 자연히 감소될 수 있다. 더구나 그러한 연주를 들어야 하는 관중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 2) 초등학생도 얼마든지 수준 높은 곡을 연주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보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 3) 3곡 정도를 선곡한다면 ①번 곡은 ‘동요’ ②번 곡은 ‘클래식’ ③번 곡은 ‘대중가요’ 정도로 구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장르를 연주해 보면 아동의 흥미와 연주 수준이 향상되고 예술적 성향을 띠게 된다. 그리고 관중에게도 감동의 물결이 전해질 수 있다.

나. 예술성을 위한 노력

연습기간은 적어도 2개월 이상은 되어야 여유가 있으며 조금씩 곡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훈련 즉, ① 느리게에서 점차 빠르게, ② 단순 연주에서 음악적 느낌을 담아서 연주하기 등으로 최선을 다하는 연주무대를 연출해보자.

경제 체험활동을 통한 문제해결력 신장



정창욱
함양고등학교 교사

1. 들어가면서

21C 미래사회는 복잡 다양한 사회 현상들이 발생하므로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학교 수업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러므로 사회과 수업에서는 교과 지식을 현장 체험하게 함으로써 이론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스스로 개념이나 해결책을 찾아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의 교수법을 학생들에게 적용시킬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2011년 전경련-한경 주최(교육과학기술부 후원) 전국 청소년 경제체험 대회(5월~8월)에 즈음하여 창의적 문제해결교수법으로 적용해 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가. 팀 구축하기

경제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4명의 학생을 선정하고 'Cool Head, Warm Heart' 라는 팀명으로 사회과학 도서를 읽으면서 사회 현상을 보는 안목과 기본 개념을 배우고 익히게 하였다.

나. 문제 상황 인식하기

이촌 향도로 인해 함양 인구가 줄어들고 지역 농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담은 신문과 주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함양이 타 지역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게 하고 문제의 근본 원인을 탐색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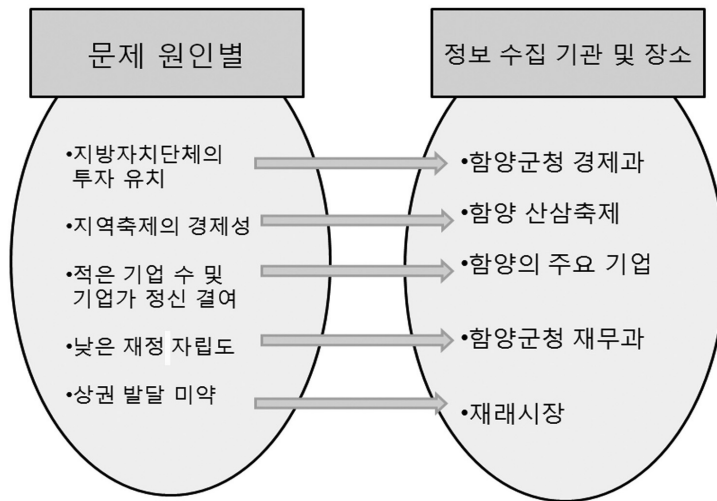
다. 문제 원인 찾기

4명의 학생들은 브레인라이팅(Brainwriting)과 주변 사람들과의 인터뷰로 함양 경제의 문제점과 원인을 경제 주체별로 분석하였다.

구분	문제 원인 분석	조사방법	
소비자 (지역주민,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함양의 전체적인 인구수 부족 매력적인 시장이 타 지역에 비해 부족 교육시설 열악함 	브레인라이팅	
생산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수 부족 미래지향적인 기업가정신 결여 	인터뷰	
지방자치단체 (함양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함양군 인구의 고령화 기업유치활동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기반 조성 미흡 시장 활성화 노력 부족 	인터뷰

라. 문제 명료화하기

각 문제 원인별로 알맞은 정보 수집 기관 및 장소를 설정하여 방문하기로 하였다. 문제 원인은 크게 5가지였는데, 지자체의 투자 유치 문제는 함양군청 경제과를, 지역축제의 경제성은 함양 산삼축제를, 적은 기업 수 및 기업가 정신 결여 문제는 함양의 주요 기업들을, 낮은 재정자립도 문제는 함양군청 재무과를, 상권 발달의 미약 문제는 재래시장인 함양 장터를 방문하여 정보를 수집하기로 하였다.



마. 원인별 사례 분석을 통한 해결책 도출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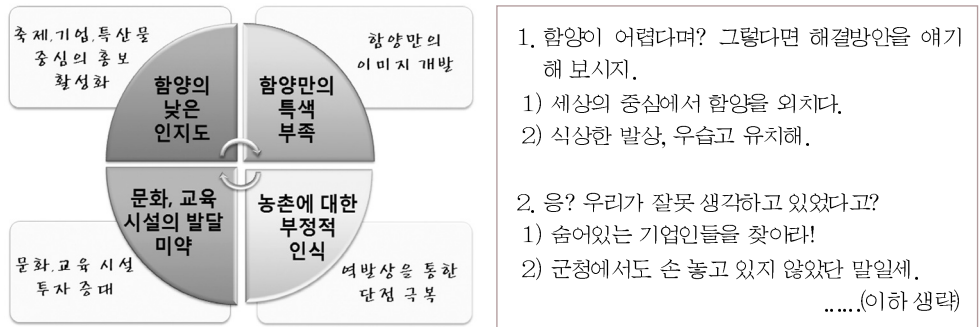
사전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함양 경제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동시에 탐구하기 위해 7월 25일~8월 19일까지 지역의 주요 기업과 재래시장, 지자체를 방문하였다.

그리고 체험을 통해 교과에서 배운 경제 개념을 실제 적용해 보는 활동을 함으로써 경제적 사고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예를 들어 함양군의 경우, ‘구직난(求職難)’ 보다는 ‘구인난(求人難)’이 심각하며 생산가능인구를 다시 함양으로 불러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율, 실업률 등의 경제 개념을 찾아보게 하였다.

‘LED 등을 이용한 식물공장’인 리프레쉬(주) 함양을 탐방하였다. 이 회사는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일자리 부족을 해결한다는 목표 아래 손쉽게 농작물을 재배하는 기술을 가지고 채소류를 판매하는 공장이었다. 현재는 생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채산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도전과 창조 의 기업이 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 학생들과 탐방을 마친 후, 농산물이 공급 측면에서 비탄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생산 기간을 단축하고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비탄력적인 성격도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 게다가 농산물의 가격 폭락, 폭등 현상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바. 해결 탐색 결과 정리하기

경제체험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팀원들끼리 토론하여 분석하고 해결책을 그래프로 정리하게 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참신한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자유롭게 글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사. 액션 플랜 및 적용하기

교과에 배운 지식을 현장 체험 활동과 병행하면서 탐구 주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실제 적용해 보는 실천적 활동을 학생들과 3개월 동안 전개해 보았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창의적 문제해결법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이 실제적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희열감을 느끼게 되었다. 가령, 보고서를 작성할 때,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모르는 내용은 상호 간에 질문하고 배우면서 ‘함께하는 활동’이 혼자하는 것보다 큰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더불어 학생들은 전국 청소년경제체험대회에 참가하여 팀원들의 공동 작품을 발표하고 평가받음으로써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체험활동의 결과물을 지역 신문에 연재하였고 지자체(함양 군청)에는 보고서를 전달함으로써 공동체 발전에 도움을 주는 구성원으로 성장하였다.

3. 나가면서

소규모 학생들을 중심으로 실시한 창의적 문제해결 교수법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해 보자는 목표 하에 경제체험활동 형태로 진행하였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학생들의 사고 방식은 수동적인 참여에서 능동적 참여로 변화했으며 팀원 간에 상호 토론과 적극적인 협력 학습을 하였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학생들은 다소 힘들어하고 어렵다는 생각도 가졌지만, 순간적인 고통을 극복하면서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고 창조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2011년 전경련-환경 청소년 경제체험 대회(교육과학기술부 후원)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지역 경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실행한 경제체험활동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형태로 적용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조금씩 채워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닌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학습한 내용이 일반화되기를 바라며 -반복학습을 통해 일반화하기-



고 찬 영
산청초등학교 교사

2008년 늦은 나이에 기쁨과 설렘으로 교직에 발령을 받은 지 어느덧 4년여가 되어 간다. 4년여의 짧은 교직경력이지만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말이 ‘교사는 수업을 잘 해야 한다.’, ‘수업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등의 수업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다. 수업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매 수업마다 고민하고 시험해 보면서 항상 부족함을 느껴왔다. 그러던 중 주위에서 특수교사 수업연구대회에 나가보라는 권유를 받게 되어 용기를 내어 국어과 수업연구대회에 나가게 되었다.

국어과 수업을 준비하는 동안 대부분의 장애학생들이 의사소통능력과 학습한 내용의 일반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마을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에 대해 말하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내용을 제시하기보다 꼭 필요한 내용을 선택하여 반복학습이 되도록 수업을 계획하였다. 이번 수업연구대회의 지도내용을 부끄럽지만 짧게 소개하면서 여러 선생님들과 이 점에 대해 함께 고민을 나누었으면 한다.

I. 수업을 준비하며

특수교사 수업연구대회는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학교에서 시간제로 학생들의 부족한 영역을 보충해주는 것과는 준비과정부터가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두 차례에 걸친 학교방문을 통해 학생들을 관찰하면서 학생들의 장애특성과 학습정도, 학생들이 흥미 있어 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다.

II. 수업을 펼치며

1. 도입

도입단계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은 수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그래서 학생들과 좀 더 가까이에 다가가서 흥미를 유발하고자 손인형을 활용하여 동화구연으로 상황극을 하였는데 학생들이 아주 재미있어 하였다.

2. 전개

국어과의 듣기·말하기·읽기·쓰기 영역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활동을 계획하고 각 활동에서 활용하는 자료를 연결하여 반복적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점점 심화하여 역할놀이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일반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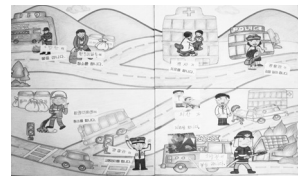
☞ 활동 1 - 노래로 배워요

- ‘병원차 소방차’ 노래를 개사한 음원자료를 통해 노래내용에 집중하여 듣는다.
- 그림 자료를 보며 마을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에 대해 학생들이 말한다.
- 칠판에 게시된 그림을 보며 정확한 문장으로 다시 따라 말한다.



☞ 활동 2 - 마을에서 배워요

- 제시된 마을그림을 보며 마을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말한다.
- 수준별 쓰기 자료에 마을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을 쓰고 마을 그림에 알맞게 붙인다.
- 한 명 씩 앞으로 나와 완성한 그림을 보며 발표하고 칠판에 붙인다.



☞ 활동 3 - 나도 할 수 있어요

- 마을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의 모형을 보며 누구인지 말한다.
-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영상자료를 보며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지 말한다.
- 한 명씩 나와 인터뷰 형식의 역할놀이를 해 본다.



3. 평가

학생들에 대한 평가는 수업 중 학생의 수행정도를 관찰하여 이루어졌으며 활동을 마친 후 칠판에 붙여 놓은 마을 그림에 모형을 붙이면서 마을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누구이며 어떤 도움을 주는 지 말하게 하여 수업의 목표 달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Ⅲ. 수업을 마치며

이번 수업연구대회를 통해 장애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반복학습이 교과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반복학습을 통해 비록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며 학습한 내용이 일반화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장애학생들의 의사소통향상과 일반화를 위해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체계적 진단 처방을 통한 맞춤형 학력향상 지도를 위한

2012. 경남 학습부적응학생 통합지원계획

- 두(頭) 드림(dream) Start 2012 -



박진우

경남교육청 교육과정과 장학사

인체의 병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그 중 학습부진은 육체적, 환경적, 정신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근본적인 치료에 한 걸음 다가섬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 ‘2012. 학습부적응학생 통합지원계획’ [두(頭) 드림(dream) 2012]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공부는 하고 싶지만 그 현실이 장애로 다가올 때 학생이나 학부모는 참담함에 봉착한다. 그것을 속 시원히 해결해 줄 새로운 프로젝트가 바로 이것이다.

1. 학습부적응학생 통합지원계획의 의미는?

학습곤란을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신문고 소리로 또는 쉬고 있는 두뇌를 일깨워 활동시키는, 시작을 알리는 소리로 꿈을 심어주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학습부적응학생 통합지원계획의 목적은

명의는 환자의 아픈 곳을 잘 진단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하는 의사이다. 또한 병의 이력 관리를 통하여 재발시 원인을 찾아 처방하는 것이다. 교육에 있어서도 가려운 곳, 아픈 곳을 시원히 처방해 준다면 모두가 교육 명의가 될 수 있다.

학습부적응학생 통합지원의 목적은 학습부진의 체계적 관리 강화로 학습기초능력과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최저수준의 학습능력을 습득하고 학습부진요인을 정확 진단으로 맞춤형 지도방법인 복지적 교육방법 적용과 학교만 지도책임이 아닌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진단·처방·관리의 효율적 운영의 기초학습 방안을 적용하는데 있다.

3. 학습부적응학생 통합지원의 방향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단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초학력미달 및 학습부적응 학생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선별·진단·처치 체제를 구성하여 검사와 추후관리 학생지원 서비스에 관하여 협의한다. 특히 학생정신건강 증진대책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학교내외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전문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여건 조성단을 구성 운영 하고 학교에서는 학교교육과정 수립시 학생정서, 행동발달 선별 검사와 추후관리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그리고 학교는 검사결과에 따른 개별 맞춤형 지도를 병행하여 지도대상 학생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다. 특히 경계선상 또는 관심군 학생 관리를 위한 협력방안에 주안을 둔다.

4. 학습부적응학생 통합지원 세부내용은

가. 기초학력 미달학생 선별 및 관리의 효율성 추구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기초학습부진학생과 교과학습부진학생 선별도구를 활용하여 학습부진을 초래한 학습적인 주요 요인을 진단한다. 또한 부진을 초래한 비학습적 요인으로 정서, 심리, 신체, 가정환경의 요인의 진단을 중요시 한다.

나. 맞춤형 학습지도와 학습클리닉 활용

학습부진 위험군이나 주의군 학생에 대한 전폭적인 예산지원으로 요인별 맞춤형 진단·치료·상담을 통해 관리의 세밀화와 전문적 효율성을 높인다. 그리고 진단과 더불어 맞춤형 학습지도와 학습클리닉을 운영한 맞춤형 처방으로 치유도를 높인다.

다. 학습부진보정 및 지도자료 개발

2011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른 교과 및 학습요소별 미흡한 점을 분석하여 맞춤형 지도 보정자료를 보급하고 진단평가를 통한 학습부진학생 관별시 문항별 분석을 통한 전 학년도의 학습결손을 파악하여 지도한다. 이를 위해 2012년 1월중 국가수준 성취도 평가보정자료와 진단평가 문항을 새로이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라. 경계선학교 및 창의경영 잔류학교 지원

학력향상에 있어 제일 곤란을 겪는 학교가 경계선에 위치한 학교이다. 그 지도결과가 해마다 다르다. 이런 학교에는 학습지원인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개별학생 지도 계획을 심화시키고 다양한 학교컨설팅 지원을 통해 교원의 학습지도방법에 대한 연수기회 제공과 선진화된 학교 풍토 조성을 위하여 지원한다.

마. 마음과 머리를 보듬어 주는 지원

학습장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여기서는 나홀로 학생지도를 위해 학생거주지 주변 교원을 대상으로 학습지도보다는 인생의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경남학습 클리닉 센터를 활용하여 학습장애의 진단·지도·관리를 체계적 운영으로 학습부진학생을 구제하게 한다.

5. 학습부적응학생 통합지원계획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생각해 볼 점

두(頭) 드림(dream) Start 2012는 학습부진학생의 체계적인 진단과 지도를 위한 각 기관별 역할의 중요성이 어느때 보다 중요시 된다. 최선의 출발을 위한 기관별 역할을 보면

첫째, 도교육청 차원에서 진단 처방의 우수사례 공유체제를 수립하고 개별 맞춤형 자료를 제작 보급 한다.

둘째, 지역교육청 및 Wee센터에서는 부진학생지도 관리를 위한 컨설팅 장학을 통한 지도방향 제시와 지역기관과 MOU를 통한 지도체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셋째, 학교차원에서는 부진학생 지도교사의 업무 경감을 통한 지도의 연속성을 기하고 분기별 지도 상황 점검을 통한 부진학생 판별 및 구제에 모든 교육력을 집중해야 한다.

넷째, 학생부진학생지도의 인적 물적자원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경남교육 연수원 경남교육연구정보원은 부진학생지도연수와 강사 인력풀을 통한 지도의 깊이를 더하고 부진지도자료 탑재와 활용으로 원활한 협조체제를 도모해야 한다.

6.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학습부진의 원인은 여러 가지이다. 이제 그 문제는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전반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시기이다. 단순히 학교나 가정에 책임을 전가할 시기는 지났다. 『모두를 위한 교육, 모두가 성공하는 교육을』이란 보편적 교육이라는 생각으로 교육 일상의 한 부분으로 학교와 지역과 가정이 모두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교육의 일선에 학교가 최후의 그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교육가족 모두가 열성과 책임의식을 갖고 열어야 될 것이다.

차

세대 나이스의 효율적 운영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경남교육



정 운 영
양산 화제초등학교 교사

활용

업무 관련 활용 팁

NEIS

이번 호에서는 저번 호에 이어서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면서 자주 문의해 오시는 질문들을 교육과정과 학적 메뉴를 중심으로 활용 팁들에 대해 질의 응답 형식으로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 교육과정

Q. 행사처리를 할 때 학년별로 할 수는 없나요?

A. [교육과정-학사일정관리-연/월간학사일정] 메뉴 연/월간학사일정관리탭에서 일괄등록버튼을 클릭하시어 행사명을 찾으신 다음 원하는 학년만 체크하신 후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Q. 선생님께서 1일 병가를 내셔서 3시간 중 1시간을 시간강사가 와서 수업을 했는데 시간강사의 결보강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시스템관리에서 사용자등록이 안되어 있고 과목개설도 안된 시간강사 분으로 결보강 처리를 하시려면 [시스템관리-사용자관리-발령전교원임시등록]에서 시간강사 분을 [임시교사등록]으로 등록 해주시면 [교육과정-시간표관리-전체시간표관리]에서 결보강처리를 할 때 대상교사 명단에 해당 시간강사 분의 이름이 조회되어 결보강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Q. 영어회화강사분이 겸임으로 되어있습니다. 권한을 줄때는 이름이 떠서 권한은 줄 수 있는데 [시간표관리]에서 이름이 안 떠 결보강과 시간표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시스템관리-사용자관리-발령전임시교원등록]메뉴에 해당 강사를 등록해주시면 교육과정에서 이름이 조회됩니다.

Q. 학교일지에 학생이동현황이 전입전출학생의 학적반영을 완료하면 된다하여 학적반영을 완료하였으나 학교일지 학생이동현황에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입력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학교일지가 생성이 된 경우에는 학적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자동으로 학생이동현황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학적 변동이 생긴 경우 생성된 학교일지를 삭제하시고 다시 생성하셔야 합니다. 결재가 올라간 일자의 학교일지의 경우 결재문서 취소 기간부터 올리셔서 삭제하시고 해당 일자의 학교일지를 삭제하신 후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다시 생성하시면 됩니다.

Q. 계발활동이나 동아리활동에 대한 결보강은 탭이 새로 생겨있는데 어디에서 하면 되는 건가요?

A. [교육과정-시간표관리-결보강]에서 등록버튼을 클릭하시면 조회 버튼의 오른쪽에 새로 추가된 <계발활동 결보강> 버튼이 있습니다. 계발활동이나 동아리활동에 대한 결보강처리는 이 버튼을 클릭하여 결보강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계발활동 결보강 버튼을 클릭하여 결보강 처리시 부서명은 수기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Q. 학교일지의 행사 및 기타란은 무엇인지 알려 주십시오.

A. 행사란은 [학사일정관리-연/월간학사일정]에서 등록된 행사가 보여지고 있으며 기타란은 [학교일지작성-기타사항관리]에서 등록된 자료가 보여집니다.

Q. [교육과정-시간표관리-기초시간표검증및반영]에서 반영을 하면 해당일자에 결보강 자료가 있으니 결보강 일지를 확인 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A. 우선 결보강 메뉴에서 결보강 일자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보강이 있는 날을 피해 전일까지 우선 검증 및 반영을 하시고 결보강 다음 날짜부터 다시 한 번 더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결보강 당일 시간표를 수정하시면 반별시간표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 학적

Q. 도로명 주소를 누가 등록하라는 생활기록부 훈령 개정 내용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에게 등본을 모두 받아서 교사가 일일이 모두 등록을 해야 하는건지 정확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도로명 주소 누가기록은 올해까지 완료하도록 인내가 되었습니다. 누가 기록을 위해 학생들이 등본을 다시 발급해 올 필요는 없고, 현재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에서 누가주소 탭에 들어가면 현재의 지번주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소를 이용해서 조회를 하시면 개정 도로명 주소가 우측에 같이 조회가 됩니다. 그것을 선택하셔서 저장하시면 바로 완료됩니다.

Q. 월 출석일수가 21 일인데 관리자용 출석통계에서 22일로 조회됩니다. 수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출석 통계자료가 맞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해당 반/월에 출결마감을 취소하시고 다시 마감만 하시면 자료가 정상적으로 조회되게 됩니다. 해당 월 출결문서에 대한 기안문 작성을 하신 선생님의 상신험에서 해당 문서를 찾아 제목을 클릭하여 오른쪽 상단에서 <기결문서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결재취소가 됩니다. 최상위 결재자까지 모두 결재를 마치게 되면 해당 달 출결마감을 취소하시고 다시 마감을하실 수 있게 됩니다.

Q. 작년도에 조기입학하여 현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현재 2학년 1반에 학적이 있고, 올해 또다시 입학자명부가 송부되어 1학년 2반에도 학적이 중복되어 남아있습니다.

A. 작년도에 조기 입학한 학생이 2011학년도에 다시 입학처리 되어 학적이 생성된 상태라면, [학교정보-학생자료개별삭제/졸업생자료일괄삭제]화면에서 해당 학생을 조회하여 현재 1학년 학적으로 조회되는 학생의 자료를 선택한 후 삭제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에서는 삭제 후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삭제 시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 학기 중에 전입해온 학생의 출결 상황을 조회해 보니, 학적 반영이 된 이후의 월별 출결만 조회가 가능하고 그 이전, 원적 학교에서의 출결상황은 학년별 통계밖에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전입생이 올해 원적교에서 결석 일수가 많아서 구체적으로 확인 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3월부터 전입 전까지 월별 출석통계를 보고 싶습니다.

A. 전입생의 경우 본교에 학적반영 된 날짜부터 학적이 생기게 되어 출결자료는 본교 출결메뉴에서 전입생 학적반영이 되어진 날부터의 출결자료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출교의 출결자료를 확인하시려면 [학적-전입관리-전입학/편입학/재취학]메뉴의 학적반영 탭에서 학적반영된 자료 조회에서 해당 학생을 클릭하신 후 출결 내역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누락되거나 오류가 생긴 출결자료는 [이전출결자료]에서 직접 수정 입력하시고 저장하여 생기부에 자료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덴마크 자유교육에서 변화를 꿈꾸다



구 현 숙

창원 대원초등학교 교사

1. 변화를 꿈꾸며

TV와 신문 등 여러 매체 속에서 북유럽의 훌륭한 교육환경을 다룬 방송과 기사들을 많이 접할 수 있다. 특히 스웨덴, 핀란드 등지의 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자유교육이나 민주적 시민교육이라는 점에서 덴마크 교육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자유교육, 경쟁보다는 조화를 배우는 덴마크 교육문화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교육'이라는 화두는 거의 전 국민이 함께 꾸는 나쁜 꿈과도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그 뿌리에는 우리 사회의 서열구조가 불평등과 차별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근본적인 변혁 없이는 깨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덴마크의 자유교육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북유럽의 여러 국가들 중에서도 덴마크의 자유교육을 살펴보고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그들의 교육방법에서 우리 교육의 변혁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2. 덴마크의 교육 현장

가. '경쟁보다는 조화를 가르치는' 교육문화

우리나라의 교육방식과 가장 차별화되는 덴마크 교육의 특징은 바로 아이들 각자의 개성을 충분히 살리고 경쟁보다는 협동을 우선시한다는 점이다. 어떻게 보면 별다른 것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 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의 치열한 경쟁구도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7,80년대 눈부신 고도성장 속에서 우리나라는 그 어느 국가보다도 빠른 경제적 안정을 취했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1등부터 꼴찌까지 점수로 표시된 성적표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해야 하는 이 교육현실 속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덴마크의 아이들은 이런 경쟁구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교육을 받고 있었다. 덴마크에서는 두 살 반 혹은 세 살부터 여섯 살이 될 때까지 유치원에 다니고, 여섯 살이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9년을 다닌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학생의 진로가 결정되는데, 각자의 적성에 따라 인문 고등학교, 상업학교, 기술학교 등으로 진학한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4년제 대학교를 나와야 취업이 손쉬운 우리나라의 시스템과는 애초에 출발부터 다른 것이다. 덴마크의 초등학교에서는 시험을 통해 등수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평가 속에서 개개인의 능력을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다.

또 학급 담임이 초등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명의 선생님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 과연 학생들에게 장점인가라는 의구심도 들것이다. 하지만 편파적인 행위를 한 교사는 파면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처음부터 그런 우려는 차단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교육방식이 덴마크에서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신분제의 잔재로 덴마크에서도 서열의식은 팽배했었지만, 1968년 일어난 학생 혁명을 시작으로 평등의식으로 바뀐 것이다. 한 국가의 사회 시스템이 바뀌는 가장 큰 계기는 바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식전환이라는 점을 일깨어준 사례이다. 저 나라는 우리나라와 처음부터 달랐으니까 저런 방식이 통하는 거라고 일단 체념부터 하는 비관론자들에게 이러한 덴마크의 역사는 분명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덴마크의 이런 평등의식은 성인들 사이에서만 아니라 미성년자인 아이들도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하나의 인격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들은 상당히 대등한 편이라고 한다. 이 또한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우리나라 의식과는 매우 다르다. 대학 졸업 후에도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모에게 의지하는 2011년 대한민국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왜 그렇게 덴마크 청년들은 자존적이고 독립심이 강한지를 알 수 있다. 어린 시절부터 개개인의 가치를 존중받고 한 사람으로서의 주체성을 인정받은 덴마크 아이들은 19살이 되는 동시에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게 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한다.

나. 덴마크의 교육현장을 둘러보다

덴마크의 실질적인 교육현장의 모습은 ‘자연’과 ‘놀이’라고 볼 수 있다. 숲이 워낙 많은 덴마크는 유치원도 숲 속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자연 속에서 맨발로 마음껏 뛰어놀고 동식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덴마크 아이들의 정서가 훌륭히 발달될 거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교육현장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잘되어 있다는 것이다. 맞벌이 부부 가정이 많은 덴마크에서는 아이들이 방과 후에도 누군가에게 맡겨져야 하는데, 덴마크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매우 잘되어 있다. 단순히 어린이들이 감당하기 힘든 과제를 주고 그것을 수행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해서 개개인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그런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수업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지시하는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자율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아이들의 자율성과 독립심을 고취시킨다. 둘째, 놀면서 스스로 배운다. 덴마크에서는 노는 것 또한 아이들이 무언가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은 다양한 놀이문화를 만들었고 아이들은 놀면서 배우는 즐거움을 알게 된다. 제대로 된 놀이문화도 없으면서 매일 공부에 지친 한국 아이들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셋째, 공교육이 바로 서 있는 덴마크에서는 사교육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오랫동안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이라고 항상 지적되는 것이 바로 과도한 사교육비용이다. 하지만 덴마크에서는 사교육을 거의 하지 않고 일부 사교육을 시키는 가정에서도 사교육 비용에 대한 부담감은 전혀 없다고 한다. 서열의식이 없기 때문에 좋은 학교에 가야하는 강박관념이 없고 그런 강박관념이 없기 때문에 사교육을 시켜야한다는 부담감이 덴마크 부모들에게 없는 것이다.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이념이 바뀌니 경제적인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다. 돈이 있어야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인 것인데, 우리는 과연 참된 교육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다. 대화하는 교육공동체 - 덴마크의 그룬트비 학교

근대사회 형성기의 덴마크 교육사상가인 그룬트비 학교로 농민의 권리가 높아지는 시기에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교육이라 보고 설립하였다. 삶을 배우는 학교로 삶은 가장 중요한 교육목표이자 교육방법으로 겉모습만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자체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는 교육이념을 가지고 있다. 즉 교육은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은 협력하는 공동체인 것이다.

1) 학교활동

- ① 아침모임 : 매일 아침 수업 전의 모임, 교장과 모든 학생들이 모여 노래를 부름(종교나 민담 등 다양한 노래)⇒자신이 공동체의 한 부분임을 느끼도록 함, 친구들과 함께함으로써 여유를 가짐
- ② 학교매점 : 8학년 학생들이 운영, 학기 중의 1/3을 매점 운영⇒자율과 타인을 배려하는 교육, 학생자치로 이어짐

③ 교사 : 다양한 문제를 제공하며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관찰, 잘 한 부분은 함양하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도와줄지 고민함

④ 커리큘럼 : 교사와 학생의 대화를 통해 결정

⑤ 자유교사대학-5년 과정

2) 학부모 : 학부모들의 모임, 학부모 주체로 학부모와 교사, 학생이 참여, 교육 활동의 자유와 결정권을 가져 학교 운영과 교사 채용, 교과 운영, 커리큘럼을 논의함, 학교 설립 가능(기본 요건만 충족한다면 재정의 75% 국가 지원)

3) 수업활동의 예

① 프로젝트 수업 : 주제는 학생과 교사 간의 토의를 통해 선정, 주제를 부분으로 나누어 모둠활동을 하고 전체를 이루어 냄 · 관계적 존재로서의 나를 인식

② 미술 수업 : 색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짐, 주입식 교육이 아닌 스스로 이루어 나가게 하는 수업

③ 이야기 수업 : 3주 간의 수업 내용이나 신화를 이야기 식으로 풀어감, 학생들은 부분적으로만 기억→질문으로 상기하고 읽어감, 교과서와 노트 없이 교사의 손짓, 몸짓, 목소리로만 이야기를 전개, 학생 스스로 이야기 속의 그림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 이를 각자의 방식대로 이해하고, 다시 스토리를 재생하는 능력을 기르고자 함

④ 상자활용 : 이야기와 관계된 물건을 등장시킴으로써 실제감 부여

⑤ 대화와 토론 수업 : 시대별 문화사조(음악, 그림), 시대의 그림 작품을 통해 예술 사조, 문화의 사조를 이해하도록 함, 한 주제를 다양한 분야로 이끌어 나감

그룬트비 교육에서는 모든 것이 대화와 토론으로 의논되고 결정된다. 이런 대화와 토론을 통해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거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자신의 주장을 변론하며 타인의 비판을 수용하면서 문제의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한 명의 권위자와 리더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체제가 아닌 다수의 의견을 서로 주고받으며 거기에서 중지를 모으면 100% 만족하고 찬성하지는 않겠지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목표 달성의 최대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대화와 토론을 위해서는 상당한 인내심과 타인에 대한 배려심, 그리고 상당히 높은 지적 수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라. 행복지수 1위의 덴마크 사람들

2006년 영국 신경경제재단과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 대학교가 뽑은 '행복지수' 세계 1위로 덴마크가 뽑혔는데, 우리나라는 56위였다. 물론 이런 조사가 모든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정확히 잴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이 행복을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더 재미있는 것은 이처럼 세계 1위의 행복도를 기록한 나라 사람들은 정작 그 일등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작은 나라’ 라는 사실을 스스로 겸손히 받아들이고, 무리한 성장과 팽창을 꾀하기보다 탄탄한 복지와 성숙한 민주주의를 통해 사회구성원이 두루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애써왔다. 이렇게 삶의 질을 중시하는 덴마크 사람들의 태도는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경쟁의식만이 우리가 배워야 할 선진국 사례로 꼽히는 상황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3. 모두가 자기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행복한 교육

아이들이 국가의 미래라는 말처럼 아이들은 국가가 소중히 지키고 교육시켜야 할 대상들이다. 하지만 그 교육에 문제가 있다면 그 국가의 미래는 안전하게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아이들을 훌륭한 인재로 기르고 행복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 교육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만 덴마크의 교육방식을 하나의 롤 모델로 인식하고 장점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훌륭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어느 날 문득 “학생 여러분 학교생활이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모든 학생들이 “예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해 본다. 정형화된 틀 속에서 선발된 인재를 위하여 경쟁의 가속도가 자리매김하는 교육은 행복지수로부터 멀어진다. 잠재적인 사고와 개인의 능력을 자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환경, 지성과 감성이 함께 조화를 이룬 교육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일본자매학교와 ‘특별한 2박3일’의 일정을 보내며



이 완 기

창원 토월초등학교 교장

1. 동심으로 하나 되는 자매학교 운영

우리 땅 ‘독도’를 두고, 한·일 간 영토분쟁이 끊이지 않고, 왜곡된 역사로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일본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오랜 세월 가슴 속에 담긴 양국 간의 양금이 여전하지만 글로벌시대에 맞추어 서로 협력하는 문화를 심어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교에서는 일본 후쿠오카현 ‘고토우지 소학교’와 1994년 자매 결연을 맺고 2년마다 교대로 양국의 학교를 오가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 이해 교육의 토대를 다지고 있다.

올해에는 본교에서 일본 고토우지 소학교 방문단(학생 27명, 인솔교사 10명)을 초청하여 11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만남의 날, 우정다짐의 날, 헤어짐의 날’의 주제로 교류 행사를 실시하였다.

2. 어울림 행사로 마음 나누기

첫째 날인 11월 17일(만남의 날), 자매학교 방문단은 부산항에서 본교 환영단과 만남을 가지고 창원교육지원청과 창원유적지(창원의 집, 성산패총, 향교) 관광을 한 뒤 어둠이 내린 학교 운동장에 도착하였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로부터 환영의 박수를 받으며 시청각실에 마련된 환영의 장에서 본교 교직원 및 학생들과 인사를 나눈 후 자매학교 학생들은 배정된 홈스테이 가정의 학생들과 함께 귀가하여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하였다. 첫 만남의 어색함보다는 서로 다른 이방인에 대한 호기심이 커서인지 말이 통하지 않음에도 서로 웃으며 배려하는 모습에서 긍정적인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다.

둘째 날인 11월 18일(우정 다짐의 날)에는 자매학교 방문단을 위한 환영식과 환영 행사, 한·일 학생들의 협력수업이 진행되었다. 방송조희로 전교생이 일본 자매학교의 방문단을 맞이하였으며 고토우지소학교 교장은 국가 간의 보다 넓은 이해를 돕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인사말로 대신하였다. 환영식에 이어

01



02



03



01 성산패총 견학

02 창원의 집 방문

03 어울림 한마당 부채춤 공연

체육관에서 한·일 한마당 공연행사가 이어졌다. 이 공연에서는 일본학생들이 우리 전통 민요인 아리랑을 리코더로 연주한 데 이어 일본노래 제창을 했고, 본교 학생들은 합창, 컵타, 부채춤, 단소연주, 판소리 등 우리나라를 소개할 수 있는 공연을 펼쳤다. 이 날 이루어진 한·일 한마당 문화축제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서로를 보다 이해하고, 친해질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이후 토월초 5, 6학년과 고토오지 소학교 학생들의 함께하는 협력수업에서는 5학년은 폼클레이와 칼라클레이를 활용한 액자만들기, 6학년은 비누 만들기 수업이 이루어졌다. 통역을 하는 선생님이 함께 참여하였지만 서로의 눈빛과 표정만으로도 모둠에서 서로 도와가며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오전의 일정을 마치고, 학교 급식소에서 우리 고유의 음식인 비빔밥과 떡으로 차려진 급식을 제공하였다. 다소 매울 수 있는 고토장 양념도 호기심을 가지고 맛보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맛있어 하는 아이들의 반응에 우리 문화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오후에는 일본 방문단의 경주에서의 일정으로 불국사, 박물관, 석굴암을 둘러보며 신라 천년고도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문화 체험의 시간을 마련하였다.

셋째 날 11월 19일(헤어짐의 날), 이틀 동안 여러 가지 한국문화 체험과 학교 생활을 함께한 고토오지 소학교 방문단의 마지막 일정으로 본교 교직원 및 학생들과 아쉬운 이별 인사를 나누고, 각 학교에서 마련한 선물 증정식 등의 송별 행사를 한 뒤 다시 만날 2년 후를 기약하며 본교를 떠났다.

3. 비전을 담은 자매학교 운영

2박 3일의 짧지만 특별한 만남의 시간을 통해 아쉬운 헤어짐의 눈물을 보이는 동심을 지켜보면서 본교의 학생들과 교직원, 자매학교 방문단 간에 서로의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올바른 역사를 세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지고, 한·일간의 자매결연 행사가 꾸준히 지속되기를 염원해 본다.



04



05



06

- 04 협력수업 장면-비누만들기
- 05 자매학교간 선물 증정식
- 06 자매결연 단체사진

교육 공동체가 함께 하는 덕계 과거시



신 문 옥

양산 덕계초등학교 교장

1. 들어가며

덕계 과거시는 지역 사회의 특성, 학교의 여건, 학생 및 학부모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의 독특한 전통적 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한자문화권 국가에서 활동하는데 주도적인 역할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덕계 과거시 제도를 활용한 범교과적이면서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우리 학교만의 독특한 축제 문화 풍토를 조성하여 특색 있는 전통을 수립하였고 8년째 시행되고 있다.

2. 덕계 과거시 운영

가. 쉽고 재미있는 한자 지도

- 재량활동 한자교재 지도 : 한자교재의 새로 배울 한자의 음(音)과 훈(訓)을 읽고 쓰기, 필순에 따라 쓰기, 실생활에서 쓰이는 예를 알아보기 등으로 지도하며 아침 활동 시간에 1일 한자 익히기를 운영하였다.
- 부수를 이용한 한자 지도 : 구안 부수를 통해 한자의 완성과 그 글자의 유래 및 발달과정을 지도하여 한자를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구안하여 지도하였다.

나. 덕계 과거시 시행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력 신장

1) 덕계 과거시 여건 조성

과거시 운영에 관한 협의회 구성 및 학교예산을 편성하였고,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설문을 통해 운영에 관한 의견을 모았으며, 양산시청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 받아 '덕계 과거시'를 학교공동체 전통축제문화로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

2) 연간 운영 계획

과 제	추진 내용	목표량	시기	장소	담당
1. 학년별 학습내용 및 평가 내용 검토	• 학년별 재량 한자교재를 이용하여 학습 한 후 평가 내용을 추출한다.	4회	4, 6, 10월	각반 교실	담임
2. 학급 과거시	• 학급 한자 과거시를 실시하여 10명의 학생들을 선발한다.	3회	4, 6, 10월	각반 교실	담임
3. 덕계 과거시	• 덕계 과거시를 실시하여 장원을 뽑아 시상하고, 학교장의 인증서인 마패를 수여하여 학습 동기를 강화한다.	1회	10월	운동장	담당
4. 덕계 과거시 축제 한마당	• 과거시 뿐만 아니라 학년별 놀이마당, 별시, 축하마당, 학부모 행사 마당 등으로 축제의 장을 펼친다.	1회	10월	운동장 교실 강당	담당

3) 한자 실력 향상을 확인하는 학급 과거시

학급 과거시는 학급에서 재량활동 시간과 아침 활동 시간에 배운 한자를 학년에서 문제를 출제하여 평가하고 지도 자료로 활용하였다. 학급 과거시는 한자 공부에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기 위해 연3회 학급 과거시를 치러 총점을 내어 학급당 상위 10명씩을 선발하여 덕계 과거시 응시 자격을 주었다.

다. 학교의 전통축제 문화로 계승한 '덕계 과거시 축제 한마당'

덕계 과거시 축제 한마당 행사는 과거 전 행사, 과거 행사, 학예행사, 과거 후 행사로 진행된다. 여는 마당으로 1학년의 꼭두각시가 과거 행사를 열어 주고 자랑스런 학급시 급제자들이 입장한다. 징소리와 함께 과거시가 시작되고 그동안 같고 닦은 한자 실력을 뽐낸다. 과거시가 시작되는 동안 교실에서는 학년별 한자 학예 활동(별시)이 진행되며, 강당에서는 학부모 행사(한자 시화 꾸미기)가 펼쳐진다.

채점이 진행되는 동안 운동장 특설무대에는 축하마당, 놀이 한마당이 진행된다. 드디어 급제자 발표의 시간! 자랑스러운 장원 급제자들이 흥패와 어사화를 하사 받는 의식이 거행되고 은영연과 유가 행진이 펼쳐진다. 마지막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2학년들이 강강술래를 하면서 덕계 축제 한마당을 마무리하게 되며 그 구체적인 축제행사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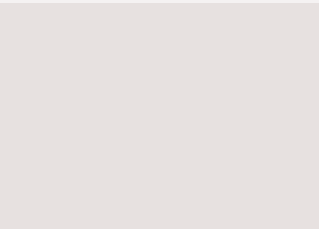
1) 덕계 과거시 실시

- 2~6학년 각 학급에서 선출된 학급시 급제자(총 250명)들이 덕계 과거시(본시)에 참여하여 그동안 같고 닦은 한자 실력을 발휘하였다.

2) 학년별 한자 학예 활동(별시) 실시

- 과거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학년별 한자 학예 활동(별시)에 참여하여 실력을 뽐내었다.

- 프로그램 : 한자 글씨 꾸미기(1학년), 한자 디자인(2학년), 한자 이름 꾸미기(3학년), 한자 바르게 쓰기(4학년), 한자 문자도 그리기(5학년), 한자 흥미 시험(6학년)



3) 학부모 행사 : 한자 시화 꾸미기

- 과거시가 진행되는 동안 학교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학부모님들이 한자 시화 꾸미기 행사에 즐겁게 참여하였으며,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치열한 경쟁 속에 장원 1명, 차상 2명, 차하 3명을 뽑아 상장과 상품을 받게 되었다.

4) 전통 놀이마당 행사

- 학년별 전통 춤과 관련한 종목을 선정해 특별활동 시간과 체육활동 시간에 연습하여 공연을 하였다.

- 프로그램 : 꼭두각시(1학년), 강강수월래(2학년), 소고춤(3학년), 탈춤(4학년), 기마전(5학년), 8자 줄넘기(6학년)

5) 시상식과 유가 행진

- 학년당 6명(장원 1명, 차상 2명, 차하 3명) 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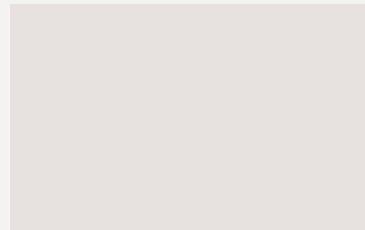
- 학부모 6명(장원 1명, 차상 2명, 차하 3명) 선발

- 장원에게는 어사화 하사와 함께 상장과 마패, 그리고 상품을 수여하고, 차상과 차하에게는 상장과 상품을 수여한 후 마지막 국악부의 음악에 맞추어 유가 행진을 하였다.

6) 축하 마당 행사

- 덕계 과거시 축제 한마당을 축하하기 위해서 한국 국악협회에서 양산의 전통 사찰 춤인 양산 학춤을 공연함으로써 축제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 시켰다.

- 시상 후에는 급제자를 위해 계발활동 국악부 학생들의 축하 공연과 양산 풍물단의 풍물 공연으로 은영연을 하였고 유가 행진 때에는 연주를 하기도 하였다.



3. 마무리

‘덕계 과거시를 통한 한자 지도 학교 전통 만들기’를 운영함으로써 한자 학습 재량활동을 통해 전 학생과 교원이 생활한자를 익힐 수 있었으며 과거시 시행으로 한자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적 학습력이 증진되었다.

그리고 과거시의 재연으로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이 증진되어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덕계 과거시’를 축제 문화로 승화시켜 개최함으로써 밝은 교실, 신나는 학교, 머물고 싶은 학교로 변모하여 학부모들에게 신뢰를 주는 한자교육의 전통이 수립되었다.

또한 학부모 참여 행사를 추진하여 학부모도 과거시에 동참하여 한자 관련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과거시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통해 덕계가족으로서의 협동을 이루며 교육을 함께 하는 것으로 전통을 매김 할 수 있었다.

덕계 과거시는 1, 2년 단기적으로 끝내는 교육활동이 아닌, 8년간 지속적으로 교육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발전을 추구하는 덕계 특색 교육 활동으로써 전통을 이어 나갈 것이다.





주 성 혜
의령 화정초등학교 교사

우리는 할 수 있다!

- 기적의 '의령 두레 오케스트라' -



01



02



03

- 01 오케스트라 창단식
- 02 토요일 합동연습
- 03 여름방학 합동캠프

- 학생의 심미성 계발과 소규모 시골 학교의 문화적 소외 극복 -

본교는 1931년 10월 30일 개교한 의령군의 전형적인 시골학교로 현재 6학년 전교생 25명의 소규모 학교이다. 시골의 어느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학부모들의 농사일과 결혼 가정이 많은 실정이지만 학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기대는 상당하다. 특히 학부모 및 학생의 요구가 많은 음악활동은 학교를 제외하고는 어느 곳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

특히 학생수가 적어 여러 명이 함께할 수 있는 음악활동은 상상도 못할 형편이다. 지역학교간 체육활동을 통한 어울림 교육은 실시되고 있지만 문화예술을 통한 어울림 교육은 실시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본교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모한 전국 65개 학생 오케스트라에 선정됨으로써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고 학생들의 문화적 소외현상을 극복하고 심미성을 계발할 수 있는 '의령 두레 오케스트라'를 운영하여 노래하는 학교의 특색과제를 1년 동안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다.

1. 이렇게 시작했어요

의령 두레 오케스트라는 문화예술 소외·취약 지역 학생들의 예술 잠재능력을 계발하여 음악적 소양 및 고운 심성을 함양하고 학교가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민과 학생들의 문화적 소양을 키우기 위해서 시작되었다.



2. 오케스트라 구성은 이렇게 되어있어요

가. 단원 선발

단원의 선발은 학생의 음악에 대한 열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선발하는데 전교생을 대상으로 정단원과 예비단원으로 편성하였다.



이런 활동을 합니다	
정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적 열정과 기초 기능이 있는 고학년 • 1개월 연습을 한 후 기능 정도에 따라 재확정 • 확정 이후 합동연습 및 발표회 참가 자격 부여
예비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단원 이외의 인원 (저학년 및 능력미흡 아동) • 1개월 연습을 통해 정단원이 될 수 있음

나. 악기 편성

화정현악앙상블 편성규모								악기 편성표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총계		정단원	예비단원
학생수	7	2	7	3	5	1	25	바이올린1	4	10
정단원	0	2	5	2	3	0	12	바이올린2	6	0
예비단원	7	0	2	1	2	1	13	첼로	2	3

3. 오케스트라 연습은 이렇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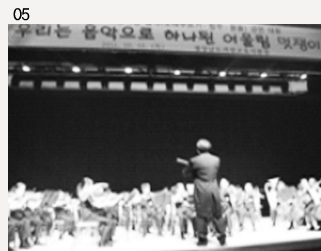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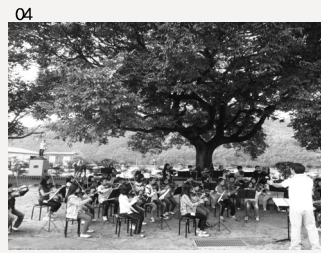
2011년 4월 15일 의령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각 학교 선생님들과 많은 내빈들을 모시고 예술적 감수성과 잠재력 실현을 통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 육성을 위한 첫 단추로 창단식을 가졌다.

각 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파트별 연습을 진행하였고, 4개 학교 연합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의 최대 단점인 한 자리에 모여서 연습할 수 없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매월 1주 토요일을 합동연습의 날로 교육과정을 편성해 단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

여름방학에는 제1회 전국학생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을 대비하여 진주 한국국제대학교에서 1주일(2011.8.1~5)간의 합숙훈련과 의령초등학교에서의 합동연습(2011.8.8~12)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연주 실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4. 이런 활동을 했어요

단원들은 학생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참가를 앞두고 2011년 10월 13일 의령



04 경연대회 참가 리허설

05 군 음악경연대회 참가

06 KBS아침뉴스타임 2011.5.11

군민회관에서 열린 군음악경연대회에 초청을 받아 공연을 했다. 이날 공연에서는 '브람스교향곡 4악장'과 '아리랑'을 연주하여 감동의 무대를 선보였다.

5. 전국 학생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참가

2011년 11월 14일 ~ 15일(1박2일) 동안 천안국립 중앙청소년 수련원에서 오케스트라 운영학교 중 전국에서 20개교만이 참가하는 페스티벌에 자랑스러운 화정 어린이들이 참가 하여 전국의 학생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합숙을 통한 공동체 의식 고취 및 무대 경험으로 성취감을 형성하게 되었다.

■ 오케스트라 운영 효과

- ▶ 학생들의 음악적 기회부여로 문화적 격차해소 및 학부모의 공교육 신뢰 분위기 조성
- ▶ 단체 협연을 통한 협동심 고취와 전인교육의 장 제공
- ▶ 학생들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특기를 신장시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 양성



07 페스티벌 개최 팸플릿
08 학생들의 다짐
09 페스티벌 공연모습



‘중앙’ 하면 역시, ‘둘안축제’ 죠!



설 유 경
함안 중앙초등학교 교사

1. 둘안축제, 탄생하다

작년 9월, 중앙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눈치 없는 여름이 곳곳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 아직 날이 무더웠다. 한 학년에 한 학급씩 총 6학급, 전교생 40명 남짓. 학창시절을 나름 큰 학교에서 보낸 터라 소규모 학교가 어색했지만, 싫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좋았다. 시외버스를 타고 여행 가는 기분을 느꼈던 매일 아침의 출근길, 복도에서 마주치는 모든 학생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는 것, 딸처럼 여동생처럼 대해주시는 가족 같은 분위기 때문에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여름이 눈치 보며 가을에게 자리를 내주려 하고, 나도 눈치가 늘어 학교에 적응해 가던 즈음, 축제 이야기가 나왔다. 올해는 여느 때와 달리 학예회와 운동회를 합쳐 축제를 열어 보자였다. 어리둥절했다. 축제? 초등학교도 축제를 하나? 학예회랑 비슷하겠지. 1차 협의회를 가지고 나서 알았다. 아, 학예회가 아니구나! 말 그대로 축제. 학생, 학부모, 교직원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참여까지 고려하는 생각보다 큰 규모였다. 게다가 축제 시간이 오후에 시작하여 밤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런 행사도 할 수 있구나. 정말 재미있고 특별한 경험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내가 학예회 담당이라는 것.

그때부터 축제날까지 정신없이 준비했다. 어린 신규라는 무기를 앞세워 선배 선생님들을 괴롭히며 정신없이 묻고,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모르는 것을 몸으로 배우기 위해 정신없이 뛰었다. 다행히 학교 구성원 모두가 팔 걷어 부치고 동참하여 준비를 무사히 끝낼 수 있었다. 축제 당일, 모든 프로그램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마지막 풍등 날리기를 할 때, 웬지 모를 아쉬움과 뿌듯함, 후련함, 감동이 뒤섞인 묘한 기분을 잊을 수가 없다. 작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단연 ‘둘안축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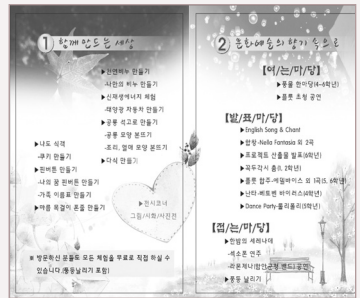
2. 둘안축제, 업그레이드 되다!

작년에 이어 올해 제2회 둘안축제를 준비했다. 올해는 학예회 담당이 아니었지만 학교의 특성상 모든 교직원이 힘을 합쳐야 했다. 작년이 첫 축제였기 때문에 생각지 못한 문제점이 몇 가지 나왔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해가며 더 완성도 있는 축제를 계획하였다.

가. 제2회 돌안축제 계획서 및 안내장



2. 행사계획		행사 순서
부	교과	행업
1부 행사	14:00	행사(2012년)
대행행사	17:30	17:30
	18:00	18:00
	18:30	18:30
	19:00	19:00
	19:30	19:30
	20:00	20:00
	20:30	20:30
	21:00	21:00
	21:30	21:30
	22:00	22:00
	22:30	22:30
	23:00	23:00
	23:30	23:30
	24:00	24:00



<1부-함께 만드는 세상>

올해는 운동회 대신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운동장에 7개의 체험 부스를 설치하여 교직원들이 운영하도록 하였다. 본교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인근 유치원·초등학교 학생들도 초대하여 함께 참여하였다. 마름 목걸이, 폰줄 만들기, 쿠키 만들기, 핀버튼 만들기, 천연비누 만들기, 신재생 에너지 체험, 공룡 석고 만들기, 다식 만들기 등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으면서도 잘 해보지 못한 체험 위주로 구성하였다.

또한 운동장 한 쪽에는 음식코너를 마련하여 손님들이 축제를 맛있게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운동장 곳곳에는 한 해 동안의 교육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 공간을 마련하여 학생 작품들, 시화, 허수아비, 바람개비 등을 전시하였다. 특히 정글짐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찍은 사진 액자를 전시한 ‘어린이 사진전’은 학생,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학생들의 기발하고 개성 넘치는 생각을 카메라 렌즈를 통해 엿볼 수 있었다.

<2부-문화예술의 향기 속으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2부-문화예술의 향기 속으로’가 이어졌다. 작년에는 국화가 필 무렵에 축제를 계획했기 때문에 추운 날씨로 강당에서 공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올해는 야외공연을 고려해 일정을 앞당겼다.

그런데 음향·조명을 이벤트 업체에 위탁했기 때문에 무대 설치까지 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다. 그때, 선생님 한 분이 생각해낸 묘안! 학부모 중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트럭을 빌리지는 것이었다. 학부모들의 협조로 트럭 섭외는 생각보다 순조로웠다. 트럭 5대를 나란히 세우고, 그 위에 나무판을 얹고, 무대 앞쪽에는 플랜카드를 달았다. 여기에 조명까지 더하니 슈퍼스타 K 부럽지 않은 근사한 무대가 완성되었다. 야외공연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흥겨운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2부의 막이 올랐다. 신명나게 한바탕 놀고 난 후에, 방과후 플룻 선생님과 본교 2학년 선생님의 플룻 앙상블이 가을 저녁을 촉촉이 적셨다. 이어지는 'English song & Chant'와 합창 무대로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다. 6학년 학생들은 축제 전부터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 산출물을 발표

하였다. 그간 학생들의 땀과 노력이 엿보였다. 귀염둥이 1, 2학년들의 꼭두각시 춤은 저절로 아빠·엄마의 입가에 미소가 띄워지는 흐뭇한 무대였다. 학생들의 플루트 합주 선율이 객석을 휘감은 후, 4학년 학생들의 난타 공연이 이어졌다. 난타 곡은 '베토벤 바이러스'. 무대 위에는 학교 제일의 개구쟁이들은 사라지고 음악과 난타에 빠진 꼬마 연주자들이 있었다. 의상, 음악, 연주 실력이 모두 갖춰진 멋진 무대였다. 학생 공연의 마지막은 5학년들의 'Dance Party!' 80년대 교복에 땡땡이 스카프로 복고 패션을 완성하고, '롤리폴리' 노래에 맞춰 신나게 춤을 췄다. 열정적인 무대에 관객들은 연신 앵콜을 외쳤지만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다음 초청 공연으로 넘어갔다. 색소폰 연주와 군청 밴드 '라몬제나'의 공연으로 축제는 더욱 빛이 났다. 공연 후에는 꾸집한 경품 행사를 열어 손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둘안축제의 꽃, 풍등 날리기를 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 가족끼리 혹은 친구끼리 모여 풍등에 소원을 가득 실었다. 점점 부풀어 오르는 풍등은 우리의 꿈과 희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듯 했다. 풍등이 손끝에서 떠났을 때, 가을 밤 하늘은 이미 오색 빛으로 수놓아져 있었다. 2011년 10월 12일의 밤하늘은 어느 때보다도 밝았다.

나. 활동 모습



체험부스 활동



4학년, 난타 공연



풍등날리기

3. 둘안축제, 명품 지역 축제로 거듭나다!

아프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했던가! 준비하면서 힘이 많이 들었지만,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고 도와주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학교에 대한 정이 더욱 커졌으리라. 준비할 때부터 풍등을 날릴 때까지 이 축제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모두의 간절한 마음이 모아졌을 것이다.

보통은 학교를 이동하면 쉽게 찾기 힘든데, 작년에 힘들었지만 좋았던 경험이 있었던 터라 퇴임하신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이동하신 선생님들께서도 오셔서 즐겁게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학생과 지역민들의 참여로 더욱 풍성하고 알찬 축제가 되어가길 바란다. 나아가 둘안축제가 우리 학교 뿐만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 지역 축제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제3회 둘안축제는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벌써부터 기대되고 설렌다.

‘창의벚꽃 인성누리 싹틔우기’ 사제동행 체험학습



김 영 수

하동 화개중학교 교감

벚꽃누리 배움터, 사제동행 체험학습의 힘찬 디딤

화개중학교(교장 전영수)는 전라도와 경상도가 만나는 ‘화개장터’, ‘왕의 녹차·전국 최고의 야생 녹차 단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십리 벚꽃길’로 유명한 하동군 화개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22명의 교직원이 6학급 116명의 재학생과 더불어 ‘떠나는 농촌학교에서 다시 돌아오는 농촌학교’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봄이면 우리 화개골 십리 벚꽃길에 어김없이 새로운 싹틔움의 변신을 선사해주는 화사한 벚꽃을 닮은 창의성 교육과 온 누리에 만발한 벚꽃과 더불어 울곧고 참다운 인성함양을 위한 ‘창의벚꽃 인성누리 싹틔우기’ 사제동행 체험학습 프로젝트의 힘찬 디딤을 서두르게 되었다.

■ 창의벚꽃 인성누리 싹틔우기 프로젝트

▶ 창의벚꽃 싹틔우기

• 창의적 체험활동 싹틔우기

우리 학교와 같은 벽지 학생들에게 결여되기 쉬운 체육문화 및 창의성 함양 체험활동을 실시하여 도시 학생들과의 문화격차를 줄이고,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자신감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또한 새로운 창의적 체험활동의 기회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미래를 대비하는 창의력 향상과 더불어 새로운 벚꽃의 싹을 틔워, 튼실한 디딤 위에 응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였다.

활동명	대 상	실행시기	장 소	목 적
환상스키 체험활동	전교생	2011.1.17 ~ 1.18	전북 무주리조트	창의성 함양
테마 수학여행	전교생	2011.5.2 ~ 5.4	제주도 일원	창의, 인성 함양
우주소년단 과학캠프	단원 19명	2011.1.24 ~ 1.25	과천과학관, 63시티	도전창의성 함양
섬진강기차마을 체험	학생 25명	2011.9.24 ~ 9.25	고흥 우주천문관 섬진강기차마을	창의적인 탐구력, 도전의식 고취
전통문화체험활동	전교생	2011.10.15	전주 한옥마을	우리 것의 소중함
선진지 견학 활동	전교생	2011.11.7 ~ 11.8	부산대, 울산현대 자동차, G과학관	꿈, 희망, 용기, 창의성 함양
뮤지컬공연 관람	전교생	2011.10.15	전주 ‘소리의 전당’	문예창작력 향상
에디슨 발명반	반원 15명	토요일휴무일	기술실	도전 창의력 향상

▶ 인성누리 싹틔우기

물질문명의 홍수 속에서 자칫 결여되기 쉬운 인간성 상실의 폐해를 극복하고 더불어 함께하며 뜻뜻한 사람 내음 물씬 풍기는 참다운 인성을 온 누리에 싹틔우고 인간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자 노력한 다양한 체험학습의 장이 마련되었다.

• 참다운 인성 싹틔우기

활동명	대 상	실행시기	장 소	목 적
Fun-Fun 연극아카데미	반원 12명	수요일 방과 후	도서실	자신감, 예술성 함양
다례문화익히기 체험	전교생	2011.5.21.	하동차문화센터	울곧은예절성 함양
‘사랑나무’ 봉사활동	전교생	2011.7.2.	섬진강사랑의 집 하동노인요양병원	희생과 봉사의 보람
녹차 만들기 체험	전교생	2011.5.21.	하동차문화센터	협동성, 인내심 함양
벚꽃누리제 개최	전교생	2011.11.25.	체육관, 도서실	예술성, 자신감 함양
테마 졸업식	전교생	2012.2.16.	체육관	학교문화 선도

• 진로체험 ‘나의 꿈 싹틔우기’

활동명	대 상	실행시기	장 소	목 적
경남청소년진로박람회	전교생	2011.9.16.	우리누리청소년센터	진로직업 탐색
찾아가는 진로진학설명회	전교생	2011.9.23.	하동차문화센터	진학정보 탐색
지역 산업체 견학	3학년	2011.11.18.	광양제철소, 하동화력발전소, 녹차연구소	애항심 고취, 진로직업 탐색
진로캠프 나의 꿈 찾기	전교생	2012.1.16 ~ 1.17.	체육관, 특별실, 교실	나의 꿈 키우기

• 노래·운동·책 삼색 무지개 어우러진 벚꽃누리 배움터

새로운 창의적 변신을 서두르는 벚꽃의 고운 싹틔움 바탕위에, 온 누리에 울곧은 인성의 벚꽃이 만발한 우리 화개골 배움터에는 노래·운동·책 읽는 학교의 삼색 무지개가 아우러진 튼실한 가을의 교육적 결실이 맺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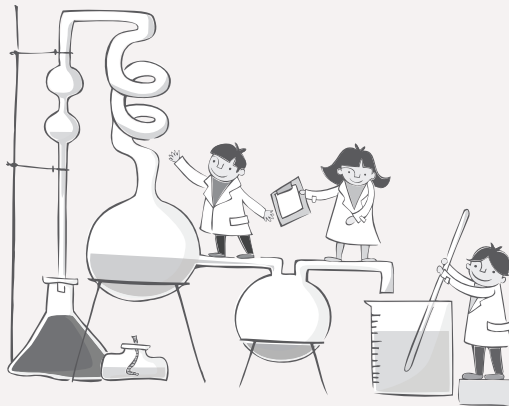
활동명	대 상	실행시기	장 소	목 적
지지배배합창반	1, 2학년	월, 금요일 방과 후	음악실	노래하는 학교
리코더합주반	3학년	수요일 방과 전	음악실	''
관소리반	반원 7명	수요일 방과 후	음악실	''
풍물놀이반	반원 9명	토요일 방과 후	하동차문화센터	''
키타언주반	반원 12명	수요일 방과 후	1-2반 교실	''
교내합창경연대회	전교생	2011.11.25.	체육관	''
배드민턴반	전교생	수요일 방과 전	체육관	운동하는 학교
테니스반	반원 8명	월, 금요일 방과 후	국립공원관리공단	''
축구반	반원 21명	월, 금요일 방과 후	운동장	''
민속택견반	반원 11명	토요일 방과 후	체육관	''
소고뿔짓반	반원 6명	수요일 방과 후	예절실	''

스포츠탈스반	반원14명	수요일 방과 후	음악실	운동하는 학교
학급문집 발간	전교생	2011.12.20.	학반 교실	책 읽는 학교
독서협동화그리기대회	전교생	2011.11.29.	"	"
독서감상문쓰기대회	전교생	2011.11.29.	"	"
외부강사초청강연회	전교생	2011.9.15(독서관련)	경남대 정일근 교수	"

제대로 꽃망울을 터트릴 수 있게

그동안 사제동행 체험학습 교육활동을 추진하면서 일부 선생님과 학부모의 불평과 비협조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상반될 수 있으니, 우리는 그저 긍정적인 사고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울퉁한 사람을 키우는 성직을 가졌다는 자긍심을 가졌다. 그리고, 스스로 꽃망울을 터트릴 수 없는 부진 학생들, 열악한 농촌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불우한 학생들이 제대로 꽃망울을 터트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어야 할 뿐이다.

이제 우리 화개골 십리 벚꽃길에 어김없이 새로운 싹틔움의 희망을 선사해주는 화사한 벚꽃을 담은 창의성 교육의 내실화 바탕 위에, 온 누리에 만발한 벚꽃과 더불어 함께하는 울퉁고 참다운 인성함양 교육의 튼실한 결실을 기대하며, 노래하는 학교·운동하는 학교·책 읽는 학교의 삼색 무지개가 아우러진 벚꽃누리 화개골 배움터! 눈이 시리도록 예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창의벚꽃 인성누리 싹틔우기 체험학습 프로젝트'를 실천하기 위한 사제 간의 아름다운 동행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오! 감사합니다



이 호 근

진주 지수초등학교 교장

스승이란 '나를 가르쳐 주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국어사전의 뜻이다. '가르쳐 준다?' 공부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 비련의 드라마 주인공이 건조한 마음을 적신다면, 개그맨이 나의 두꺼운 얼굴에 웃음 준다면 그것도 넓은 의미의 가르침이라 나는 생각한다. '누가?' 공자님 말씀에 '三人行 必有我師'라 하셨으니 남녀노소 직위고하가 없는 듯 하고, 향을 싼 종이에서 향내음 나고, 생선 묶은 새끼줄에 비린내 나는 이치를 깨닫지 못한다고 부처님이 한탄하셨다는데, 풀잎 같은 나를 일으켜 세워 주는 것이라면 삼라만상 모든 것이 나의 스승이라고 생각해 본다. 그래서 나는 작은 감동이 다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큰 감동으로 되돌아오는 사건의 주인공, 나의 작은 스승을 소개해 본다.

학교 버스가 저만치서 울렁 출렁거리고 있었다. 호기심을 안고 들여다보니 김종열 주무관이 바닥 구석구석, 의자 틈새 살살이 쓸고 털고 닦고 있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어서 생각보다 입이 먼저 묻는다. 이웃학교 두 곳의 유치원생과 본교 유치원생들이 참여하는 기차여행 체험학습 준비를 하고 있단다. 본교 학교버스가 세 학교 원아들을 싣고 기차역까지 실어다 주고, 그 다음 기차여행 목적지인 하동에서 원아들을 태우고 돌아오는 큰 행사이고, 또 이웃학교 귀한 유치원아 손님들을 먼지 한 점 없는 깨끗한 버스로 모시고 싶어서 대청소 중이란다. 변덕스런 가을, 기온이 뚝 떨어졌다. 동지설달 남강에서 빨래하던 어머니 모습이 겹쳐지면서 몸이 으스스해진다. 게다가 물청소까지나.....

짜증나고 못마땅한 당신이 내 손님이라면 그래도 정성껏 대접해야지 하고 마음을

다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 아이가 나의 귀한 손님이라면 공부 못한다고 해서 미워하지 않을 것 같고, 자기 좋은 일에 마음을 뺏겨 선생님 물음에 대답 늦었다고 책망하지 않을 것 같다. 머느리에게도 존댓말로 공경했던 외솔 최현배 선생님, 방탕한 아들에게 손님 대접으로 버릇을 고쳤다는 일화가 전해져 오는 황희 정승. 그와 같은 감동이 본교 김종열 주무관에서 느껴진다. 귀여운 손님, 그 손님 마중 정신이 존경과 사랑을 낳고 존경과 사랑이 배려를 낳고 그 배려가 행복한 지수교육의 샘이 되리라.

춘철살인의 감명을 주시는 분이 또 계신다. 예수의 나이로 만기 전근을 하셨는데 본교로 전입하게 되었다. 넓은 교내의 수목과 화단은 물론 울타리 안팎의 억센 잡초들이 버티고 서 있으니 이 모두가 조학제 주무관이 대적해야 할 것들이었다. 필요한 동력 기구들을 손에 익히는 일도 일거리였다. 본관 앞 화단에 독일 병정처럼 열병해 있는 두 길이나 뒹직한 향나무들의 전정도 예삿일이 아니다. 조주무관의 어깨가 병약하고 기력이 예전 같지 않고, 큰 키가 바람에 흔들리거나 한다면 걱정이 앞선다. 건강이 걱정되어 하실 만큼 일하시면 하루나 이틀쯤 용역으로 전정도하고 잡초 베기도 할 작정이었다. 하지만 요즘 시골은 사시사철 농번기라 일손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 중 며칠 출장을 다녀왔더니 학교 안팎이 명경같이 정리되어 있었다. 조주무관이 다 하셨단다. 난 고마움보다 마음이 좀 무거웠다. 높은 사다리가 필요한 작업이 많아서 무의식적으로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었다.

“내 일로 학교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직무 정체성. 아, 이런 계구내!’ 이런 저런 이유로 내가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은지? 정신 줄을 다시 조이는 계기가 되었다.

자신의 승용차로 학생들과 같이 출근하여 지도하시는 선생님을 보아도, 이쪽 저쪽 빈틈을 몸과 마음으로 메우는 선생님들을 보아도 시큰둥, 찰흙과 같이 물샷틈 없이 일하는 실장님을 비롯한 주무관을 보아도, 자식이 아파도 쉽게 내색하지 못하는 동료들을 보아도 무표정. 앞으로 교직원들의 작은 떨림에도 동고동락하여 지수초등학교 학교교육과정 질의 향상시키는 계기로 삼으리라.

조학제 주무관, 김종열 주무관의 이름을 드러내어 겸손한 분들에게 또 다른 폐가 되지 않았을까 걱정된다. 작은 학교라 이름을 숨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마는 나만의 이야기를 가슴 속에서 털어 내어 경남 교육가족들에 날려 보내고 싶기 때문이다.



전통예절과 다도를 통한 인성교육



황 현 숙

창원 현동초등학교 교사

운동장의 은행나무는 제 잎을 떨어뜨리면서 내년을 준비하고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면 따뜻한 차 한잔이 생각난다. 오전 수업은 정신없이 지나간다. 밀려오는 해일처럼 아이들과 씨름하다 보면 어느새 뱃 속이 꼬르륵~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린다. 드디어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는구나. 휴~

맛있는 점심을 먹고 컴퓨터를 열고 공문을 접수하고 남은 하루 일을 시작한다.

한참을 컴퓨터에 눈을 고정하고 이리저리 업무처리를 하다 보면 어느새 목이 마른다.

‘차를 한잔 마셔야지’ 언제부턴가 나에게는 차가 친구처럼 가까이에 있게 되었다.

작년부터 전통예절사, 다도예절사 연수를 갔다가 알게 된 차맛, 멍멍하고 무슨 맛인지 몰랐었는데 이제 진정한 차맛을 알아가는 것 같다. 차는 색(色), 향(香), 미(味) 3요소가 조화를 이뤄야 진정한 차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고 차도예절, 다도예절이라고 불린다.

다도(茶道)는 정성스레 불을 피우고 물을 잘 끓여, 좋은 차를 간 맞게 하여 마시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 평범한 일체의 행위들이 정신을 가다듬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인들은 도(道)로 승화시켜 차일을 다도라 하였다. 차 한잔 우려 마시는 데 무슨 ‘도’라는지 몇 년을 배워도 배울게 있다는 게 나에게는 의문이 들어서 매주 월요일이면 만사를 제쳐 놓고 다도를 배우러 간다. 나를 위하여 차를 우리고 그 우린 차를 내가 마시면서 명상에 빠져드는 모습이 너무 행복하다.

다도가 중국이나 일본에서 전해진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나 우리의 다도는 우리 고유의 색깔을 가지고 전해져 내려 왔다. 중국의 다도는 불교 중심의 선사상과 직결되고, 일본의 다도는 차 마시는 형식과 행동 표현에 주력하는 반면, 우리의 다도는 시대마다 차와 정신세계를 연결하는 다도정신이 있었다. 특히 초의선사의 다도는, 차를 따는 시기와 제다 과정은 물론이고, 물을 선택하여 그 물을 끓여서 차를 우려 마시는 과정을 중용(中庸)사상에 대입하여 설명하였다. 깊은 정신세계와 연결되는 우리의 다도는 중국의 다도와 일본의 다도를 한 차원 뛰어 넘는 다도라는 것이다.

옛날부터 차가 우리 생활 속에 있었던 근거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의 전통 혼례법

에는 봉차(封茶)를 보내는 풍습이 있는데 봉차(封茶)는 시집 가는 신부가 차를 가지고 가는 것이다. 명나라의 학자 낭영(郎瑛 : 1487~1566)이 저술한 칠수유고(七修類稿)에 이런 기록이 있다. '여자가 시집갈 때에 그 부모는 잘 여문 차종자를 내려주고 여자는 혼례 품으로 차종자를 가져가서 시집식구에게 바치듯 챙겨 올린다' 하였다. 거기에는 '여자로서 하늘의 이치를 보존하고 음탕한 인욕을 없앤다(存天理 滅人欲)'는 의미가 있는데 전래적으로 차종자를 뿌려서 자리면 그대로 키우되 다른 흠에 옮겨 심지 않는 풍속처럼 한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다른 남자에게 옮겨 살 수 없다는 '종일이종(從一而終)'의 의미가 있고, 또한 '차나무 가지가 무성하여 그물처럼 엉키듯 재산을 모으고 자손을 번창시키면서 살아가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니 과연 주역의 이치는 차문화에 심대한 영향을 끼쳐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차에 대하여 공부하다 보면 초의선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동다송을 쓴 초의선사는 차의 기본을 '결손'과 '덕행'이라고 하였다. 차를 달이는 모든 과정에 정신을 곧추세우지 않으면, 색과 향은 물론 맛도 바로 내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차를 마실 때 형식적인 예절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세는 정좌하고, 눈은 앞사람을 직시하지 말 것이며, 언행은 조용하게, 남의 말이 끝나면 조금 후에 말을 이을 것이고, 손은 공손하게 할 것이며, 차를 마실 때도 소리를 내서는 안된다. 이러한 차예절을 몸에 익히고 습관이 되면,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차에 대하여 조금씩 알아가면서 좋은 것을 나만 알고 있을 수가 없어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 버릇없이 대들고 떠들던 학생들도 차 수업을 할 때는 선비처럼 가지런히 손을 모으고 꿇어앉아 바른 자세로 다기를 다루는 착한 학생이 되는 것이 너무 신기하기만 하였다.

예의범절은 남을 편안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한다. 손을 공수하고 예를 표하는 모습은 천사와 다름이 없다. 아이들은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지고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예쁜 모습이다. 특히 1학년 여학생들의 차 우리는 모습, 고사리 손으로 다기를 감싸고 잔에 따르는 모습은 너무 예쁘다.

며칠 있으면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통예법과 다도예절에 대한 학부모 강좌를 개설하여 희망을 받아 강의를 할 예정이다. 차 한잔을 두고 학부모들과 거리를 두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예의를 갖추어 대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개설한 강좌이다. 연일 마스크에 등장하는 교육현장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는 이 때, 대화를 통하여 학생, 학부모들과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서 점점 학부모와의 거리, 사제간의 정을 돈독히 하는데 차를 나누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을 것 같다.

마침 요즘 교육기부를 활성화시키는 이때 그동안 배운 전통예절, 다도예절에 대하여 되돌려 줄 수 있는 교육기부에 동참하도록 노력해야겠다.



행복한 엄마를 꿈꾸며

-「엄마를 부탁해」를 읽고-



전형남

김해 대청초등학교 2-2 김민서 어머니

새벽이면 늘 잠을 깨곤 했다.
 따각따각 마주치는 염주소리와 나지막한 엄마의 경 외는 소리, 잠이 깰 새라 조심스런 108배 방석소리.
 아직도 꿈 속을 헤매고 있을 즈음 얼굴을 쓰다듬는 엄마의 손길에 하루가 시작된다. 나란히 자고 있는 육남매의 얼굴을 일일이 쓸어주시고서야 엄마의 하루도 시작된다. 가족을 위해 기도했던 엄마의 따뜻한 손에 얼마나 큰 에너지가 담겨있었는지, 어렸던 그때는 알지 못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대가 아니었음에도, 힘겨웠던 시절을 온몸으로 고스란히 안아냈던 엄마의 모습에 신경숙의 '엄마'가 겹쳐진다.
 미국의 모대학 p교수의 '김치 냄새 나는 크리넥스의 싸구려 위안'이라는 흑평 때문이었는데 곁에 몇 달을 두고도 읽지 않았던 신경숙의 소설을 자동차 바퀴가 기분좋은 마찰음을 내는 밤, 비가 하염없이 내리는 날 밤에 우연히 마주하게 되었다. 그날의 빗소리가 염주 소리 들리는 향 냄새 은은한 그 방으로 나를 데려갔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작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타인이 대신 말해주듯 무심하고 간결하게 툭 던지면서 풀어나간다. 글 속의 화자는 '나' 이기도 하고 '너' 이기도 하고 때로는 '엄마' 이기도 하고 '딸' 이기도 하고 '아버지' 이기도 하고 '아들' 이기도 하다. 소설은 아버지의 생일날 서울역에 도착한 엄마가 사라진 것에서 출발한다. 가족들은 엄마를 잃고서야 새삼스레 한 인간으로서의 엄마의 존재와 삶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아주 오래 전부터 가족들에게 엄마는 잊혀져 가는, 또는 잊혀진 존재였는지도 모른다. 돌아보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 존재, 그래서 평소 내 일상적인 삶 속엔 없지만 내가 필요할 땐 언제나 달려와 줄 것 같은 존재, 그리고 그래야 마땅한 존재가 엄마라고 생각했던 가족은 엄마가 사라짐으로 인해

복잡한 감정들과 마주하면서 힘들어하고 후회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엄마를 잃어버린 후에야 알게 되는 엄마의 존재감, 그 부재로 인한 회한과 통한은 부질없는 것이다.

가난했던 한국의 지난 날에, 특히 더 가난했던 농촌에서 먹고 사는 것이 큰일이었던 시절, 자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자 애쓰며 억척같이 살았던 엄마. 이제서야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시점에 엄마는 극심한 두통과 기억력까지 희미해지는 병마에 시달리기 시작한다. 이즈음의 계절에는 논두렁의 우렁이가 제 새끼들을 품안에서 키운다. 조금씩 조금씩 자리는 새끼들은 제 어미 속을 흘러당 과 먹은 뒤에야 엄마와 분리될 수 있다고 한다. 우렁이와 너무도 닮은 꼴의 사라진 엄마. 그리고 나의 엄마, 우리들의 엄마..... 이제야 깨닫는 슬픈 아이러니다.

아이 딸린 '여자'로 정의되는 사전적 의미의 엄마. 그렇다면 엄마도 필히 여자일진대, 내가, 우리가, 그대가 잇고 사는 이 평범한 '사실'을 전하기 위해 작가는 반전을 시도한다. 정신적 불륜이지만 엄마를 엄마가 아닌 '박소녀'라는 여자로 바라봐 주는 한 남자를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았던 엄마 작가는 세상의 모든 엄마는 어머니로 태어난 것이 아니며 엄마도 사랑할 줄 아는 한 여자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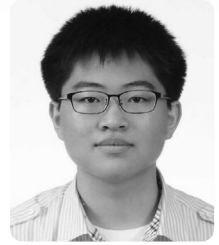
에필로그에서 큰 딸은 언젠가 엄마가 부탁했던 장미나무로 만든 목주를 기억해내고 그것을 산다. 그리고 십자가 형벌의 고통 속에서 사망한 예수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끌어안고 비통해하는 아름다운 성모 그 앞에서 딸은 엄마의 따뜻한 손길과 냄새를 느낀다. 엄마를 부탁한다는 큰딸의 이 우레와 같은 속삭임은 작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압축된 한마디 일지도 모른다.

이 책 덕분에 바쁜 일상을 핑계로 잇고 사는 엄마를 모처럼 밤새 껴안고 있었던 것 같다. 백일 기도며 1년 기도, 3년 기도, 당신과의 약속과도 같았던 끊이지 않던 엄마의 기도소리. 다 자란 육남매 걱정은 뒤로 하고 이제 편히 늦잠을 주무셔도 될듯한데 여전히 새벽이면 홀로 기도하시는 엄마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예수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끌어안았던 성모의 손길만큼 애뜻하고 간절했던 엄마의 기도. 그 손이 왜 그리 뜨거웠는지 불혹이 다 된 지금에야 조금 알 것 같다. 가끔, 아주 가끔 외갓집에서 잘때면 할머니 옆을 떠날 줄 모르는 큰아이. 파각거리는 염주 소리가 신기한 것인지 씬 없는 108배가 신기한 것인지..... 코 끝을 땀도는 은은한 향냄새를 따라 피어오르는 엄마의 정을 난 아이에게 과연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이 모든 것을 뒤돌아 보게 만든 작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제 어미 속을 흘러당 과 먹고서야 분리되는 우렁이처럼 그렇게 육남매를 키워냈던 엄마의 가슴에 얼룩진 눈물자국이 조금이라도 얼어지게, 스산한 외로움으로 병들지 않게, 이제 마주잡은 나의 두 손에 엄마를 부탁해 본다.



마음이 닳아갔던 시간들



강 민 성

통영고등학교 3학년 6반

따뜻한 봄바람을 맞으며 나는 친구와 함께 자생원에 봉사활동을 가기 위해 길을 나섰다. 집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토요일 휴업 일엔 이틀, 보통 팬 일요일에 봉사활동을 간다. 다른 날은 학교에서 밤 10시 경이 되어야 돌아오기 때문에 평일엔 가기 힘들다. 이렇게 내가 자생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중학교 3학년 때 읽은 책 「달 만큼 큰 미소」와 고등학교 1학년 때 내 친구 영빈이를 만나면서부터이다.

영빈이는 정신지체 1급으로 장애가 있는 친구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 되었다. 처음 교실에서 자리를 정해 앉게 되었을 때 내 뒷자리에 영빈이가 앉게 되었다. 같은 중학교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몰라 처음엔 다소 서먹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빈이가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것을 아신 담임선생님께서 나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1년 동안 영빈이 짝이 되어 영빈이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하셨다. 수업 시간에 학습을 도와주고 쉬는 시간엔 같이 대화하며 놀이줄 것을 부탁하셨다. 그리고 영빈이가 문제 행동을 일으키면 행동을 직접 중재하는 역할도 해야 함을 일러 주셨다. 대답은 했지만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내가 내 동생과 사촌들을 대하는 것처럼 영빈이를 대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조금 마음이 편해졌다. 하루는 미술시간이라 미술실로 가야 하는데 영빈이가 기분이 안 좋은지, 어디가 아픈지 책상에 엎드려 전혀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시작종이 쳤는데도 꿈적도 하지 않아 어르고 달래다가 나중엔 강제라도 일으켜 데리고 가려했지만 나 혼자 힘으론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그때 마침 담임선생님께서 우리를 발견하신곤 도와주셨다. 그땐 내가 영빈이와 같이 보낸 시간이 적어 영빈이의 상태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진정할 도움이 되지 못했다. 아마 나도 당황하고 영빈이도 내가 자기 마음을 몰라주니 답답했을 것이다. 나는 이런 일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부대끼며 정이 드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영빈이를 향한 따뜻한 마음만 잃지 않는다면 크게 잘못되는 것은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영빈이는 특수반에서 대부분의 수업을 받고 우리와 같이 있는 시간은 하루에 1~2시간씩이다. 수업을 듣고 진지하게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수첩에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적곤 한다. 거기엔 영빈이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이 많이 적혀 있다. 반 친구들 이름, 축구, 텔레비전 드라마에 관한 것, 가수 비, 텔런트 김래원 등 연예인들의 이름도 다양하게 적혀 있다. 항상 뭘 적으면 나에게 보여준다. 그럼 나는 웃으면서 거기에 맞는 반응을 해준다. 그리고 또 영빈이는 선생님들의 말투를 흉내내길 좋아해 우리를 자주 웃기곤 했다.

처음엔 영빈이가 다소 소심한 성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으나 그것이 잘못된 판단임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친하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는 다소 자신이 없어 하지만 우리 반 친구들이나 나와 같이 있을 땐 칭찬과 격려의 말을 듣게 되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게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체육시간이었다. 1학기 때는 배드민턴 수업을 했는데 영빈이가 좋아하는 종목이 아니었는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런데 2학기가 되어 배구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엔 약간 빠는 듯하더니 우리 반 친구들이 박수를 쳐주며 격려하자 용기를 내서 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자기 스스로 즐거워서 배구에 푹 빠져 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학습 도움실에서의 수업이 있을지라도 체육 시간이 되면 반드시 강당에 나와 배구를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좋아하고 즐기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영빈이는 축구도 좋아했다. 영빈이가 수첩에 축구에 대한 것들을 적곤 하는 것을 보면 분명 관심이 있고,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처음엔 열심히 참여하지 않았다. 내가 열심히 달리라고 해도 “아이고 허리가 아파서”, “아이고, 힘들다.” 하며 하지 않더니 어느 날 영빈이가 골을 넣게 되었다. 당연히 그날의 MVP는 영빈이가 차지하게 되었고 반 친구들은 모두들 이렇게 축구를 잘하는지 몰랐으며 감탄하는 말을 연발하자 영빈인 우쭐해가며 기분이 아주 좋아 보였다. 반 친구들이 정말 고마웠고 영빈이가 대견했다. 한 번은 특수반 선생님과 영어 선생님 한 분, 멘토, 멘티들과 토요일 오후에 함께 모여 축구를 하러 갔다. 그날 난 영빈이의 진정한 축구 실력을 봤다. 영빈이가 축구선수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칭찬을 들으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 말이 있고 나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으면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이 세상에서 못할 게 없겠다는 자신감으로 가슴이 빠근해진다. 아마 영빈이도 이런 기분이 마음에 가득 찬 게 아닐까. 칭찬받길 바랄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큰 깨달음이 가슴을 찔렀다. 영빈이와 축구를 한 뒤 우리는 모두 같이 저녁을 먹었다. 레스토랑에서 스파게티를 먹었는데 영빈이는 오늘도 그만 남기고 말았다. 영빈이가 너무 아워서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엔 늘 하지만 속이 안 좋아 많이 못 먹는 것이 안타까웠다. 우리는 목욕탕에도 같이 갔다. 영빈이와 내가 서로 때를 밀어주는 사이 우리는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어 가고 있었다. 그날의 일들은 내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힘들고 방황할 때 나의 길을 밝혀주는 의미 있는 등불이 되어 줄 것임을 희미하게나마 확신한다.

12월엔 영빈이가 1년 동안 한지공예를 배운 실력을 발휘해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시내 봉평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전시하고 있었다. 선생님들과 우리 반 친구들이 함께 갔다. 거기서 영빈이 아버지를 처음 만났다. 처음 뵈는데도 영빈이와 너무 많이 닮아 아버지임을 한 눈에 알아보았다. 영빈이의 작품을 보니 얼마나 정성을 다해 만들었는지 짐작이 갔다. 우리 반 친구들은 영빈이를 보고 “진짜 이걸 네가 만들었나?” 하면서 신기해하며 감탄했다. 내가 왜 그렇게 마음이 뿌듯해오던지.

이 일이 있던 며칠 후 영빈에게 전화가 왔었다. 나는 그때 공부하느라 미처 휴대폰을 보지 못했고 1시간 쯤 뒤에 전화가 온 것을 알고는 다시 영빈이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다음날 왜 전화했냐고 물어보니 영빈이가 하는 말이 같이 영화보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것이었다. 전에 한 번 선생님과 여러 친구들이 같이 모여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영빈이가 이렇게 나에게 개인적으로 영화를 같이 보러 가자고 한 적은 없었다. 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제는 내가 영빈이와 정말 정이 들었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다고 했다가, 12월이 가면 영빈이와 헤어져야 했다. 하지만 걱정이 앞섰다. 올해 우리 반 친구들과 같이 다른 반 친구들도 영빈이를 잘 돌봐 줄 수 있을까? 나는 믿고 싶었다. 우리는 모두 아름다운 청소년들이라는 것을.

지금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반이 나뉘게 되었지만 영빈이와 만날 때마다 항상 하이파이브를 하고 어깨동무도 하고 허리도 두드려 준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눈다.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이런 사이로 친하게 될지 짐작도 못했다. 그리고 영빈이가 이렇게 밝게 변할지도, 영빈이의 가슴에도 틀림없이 나와 같은 마음이 가슴에 새겨져 있으리라 믿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이 대화하고 같이 놀고 같이 웃는 시간이 많았으니까 마음도 생각도 많이 닮아져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벽 교수의 『인재혁명』을 읽고



강 호 경

합천 대병초등학교 교장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경쟁력 있는 인재를 키우려면 학교 교육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먼저, 저자는 글로벌 시대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첫째 글로벌 시대는 평생교육시대입니다. 예전에는 고 3때까지만 공부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합니다. 둘째, 글로벌 시대는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정보와 지식이 홍수처럼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4년마다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학습해야 전문가로써 활동할 수 있습니다. 외워서 써먹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에 의해 습득되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21세기에 요구되는 인재는 현실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분별할 수 있고, 정보를 결합할 수 있으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분야를 아는 것보다 한 분야를 깊숙이 파고들 수 있는 교육경험이 요구됩니다. 셋째, 인재 양성 단계(학교)와 활동 단계(직장)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부와 일 자체가 병행되어야 하며 학습자가 학습 주체가 되는 교육 방식이 필요합니다. 교육도 전통적인 집합교육(같은 사람, 같은 시간, 같은 장소)보다는 비전통적인 교육(누구라도, 언제라도, 어디든지)방법이 우세할 전망이다. 교수자 중심의 지식 정보 유통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21세기 교육은 인지적 능력 외에 창의력과 인성을 두루 갖춘 인재 육성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체험학습, 문제해결 중심 학습법, 인턴십이라는 21세기형 교수·학습법이 등장하였으며, 교육도 누구나 미래의 인재로 자리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교육관을 가지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견해 주고, 최대한으로 계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넷째, 먹고 살기위해서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시대에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여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시대로 변화됨을 직시하고 평생학습을 추구할 수 있는 저력과 내적 동기의 고취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학교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이 달라져야 합니다. 혼자만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진실의 즐거움을 맛보고 즐기며, 다른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관심사를 최선을 다해 탐구하고 열정적으로 꿈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길러내야 합니다.

이러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필자는 세 가지의 실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으며, 이것을 천(창의성)·지(전문성)·인(인성)으로 풀어줍니다. 첫째, 창의성입니다. 주어진 문제나 일을 주어진 방법대로 생각 없이 해결하거나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풀어가거나 해결하려고 노력하여 앞서가는 창의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전문성입니다.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생사주기가

짧은 시대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평생 공부해야 한다는 신념이 필요합니다. 셋째, 인성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양한 능력과 지식을 지닌 사람과 팀워크나 네트워크를 이루어 일을 해야 하므로 남들이 생각하기에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창의력을 길러 주기 위해 가장 먼저 기초지식을 튼튼히 쌓아야 합니다. 남과 소통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과 기술을 익히기 위해 국어를 배우듯이 사회인으로 생활하기 위해 기초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퍼지사고력(정답이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도록 허용하고, 약간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모험심을 길러야 주어야 하며, 긍정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꿈과 희망을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전문성을 길러주기 위해 첫째, 교사는 학생들에게 재미있는 수업을 전개하고, 학부모님들은 학생들이 학습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 학생 개개인의 관심사에 집중하여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셋째, 교사나 학부모가 스스로 진정된 학습 자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이 모방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성을 길러주기 위해 인성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알아야 하는데, 필자는 인성을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인성도 오랜 기간 동안 학습한 결과’ 즉, 다시 말하면 ‘실력’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며 올바른 인성을 얻기 위해 다른 교과목의 실력처럼 똑같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필자는 ‘인성교육은 리더십이다.’라고 말합니다. 리더는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베푸는 사람이며, 리더십 교육은 남에게 마음을 베푸는 것이며, 리더십교육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리더십교육은 교과서나 강의만으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동아리 활동처럼 학생들간의 관계 활동에서 자기 역할을 수행해 봄으로써 그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 내면화된 후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발휘됩니다. 비탄직한 인성교육을 위해 또 하나의 방법은 꿈 꾸기 교육입니다. 꿈이란 자신의 열정과 재능을 쏟아 붓고 싶은 관심사이며, 자기 미래에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다는 것은 자기 인생에서 희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꿈(목표)이 있는 사람은 생활이 즐겁고 열정적이며 엉뚱한 짓을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목표를 세웠으면 지금까지 생활 해온 습관 가운데 나쁜 것은 버리고, 꿈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습관을 가져야 하며, 자기 꿈과 관련된 영역의 책과 자료들을 찾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지금 학생들은 물질적 풍요 속에 정신적 빈곤을 겪고 있습니다. 정신적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아이들이 따뜻한 정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체벌보다는 감정코치를 통해 학생들이 느끼는 감정을 인정해 주고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학생에게 초점을 맞추고 학생들의 재능과 취미에 따라 그것을 최대한으로 키워줄 수 있는 희망을 선택하는 교사,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 학생에게 적용하는 교사가 필요하며, 학생들에게 학부모의 꿈을 주입시키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부모, 학생의 현재 상태를 잘 파악해서 자녀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잘 관리해주는 학부모가 필요합니다.

학교도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학생들이 지닌 다양한 특성을 잘 발휘하여 세계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 개개인의 가슴에 뜨거운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맞춤형 재능교육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작품명 : 향수



새로운 기계 문명의 산물에서 탈피하여
정감 넘치는 고향집의 장독과
흙으로 바른 벽을 소재로 향수를 표현함.



김 봉 대

- 현)청원 명서초등학교 교감
-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 경남미술대전 특선 2회 입선 9회
- 경상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
- 그룹전 다수



2011 GYEONGNAM EDUCATION EXPO 2011
경남교육박람회

경남진로교육체험전
경남평생학습축제

12. 8(목) ~ 11(일)
창원컨벤션센터(CECO)



박람회를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NAVER 




경남교육박람회 검색

<http://www.gneexpo.kr>



2011경남교육박람회 사무국
TEL. 055. 210. 6107 FAX. 055. 210. 6109



주최 :  경상남도교육청  경남신문
주관 :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경남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GYEONGNAM EDUCATION EXPO 2011